

MBC 역사드라마의 변용과 변화: 1969~2016

주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1. 문제의 제기

1969년 MBC가 개국한 이후 첫 드라마는 역사드라마 〈회심곡〉(1969.8.15.~1969.11.8.)이었다. 지난 48년 동안 MBC는 역사드라마 장르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KBS 역사드라마는 국가정체성과 민족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TBC는 여인의 애환을 다룬 멜로 역사드라마에 집중해왔다면, MBC는 KBS와 TBC와 다른 위치에서 역사드라마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물론 이것은 MBC가 KBS나 TBC와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의 역사드라마를 만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드라마를 제작해왔지만, 새로운 장르관습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작품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작해왔다. MBC 역사드라마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형식, 미학, 서사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MBC는 1969년 8월 8일 개국 이후 조선조 중기 당쟁에 휩쓸린 양반가의 애환을 다룬 첫 번째 역사드라마 〈회심곡〉을 시작으로 2016년 〈옥중화〉(2016)에 이르기까지 총 98편의 역사드라마(정규편성)를 제작해왔다. 일일 역사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연 〈장희빈〉(1971), 첫 번째 해외촬영을 시도한 〈타국〉(1977), 주중 월화드라마 편성의 출발점을 제시한 〈장희빈〉(1981),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기록적 역사서술을 시도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추동궁마마〉에서 〈대원군〉까지)(1983~1990), 역사드라마의 새로운 연출과 서사전략을 보여준 〈허준〉(1999), 사전제작과 다모페인이라는 새로운 시청자 집단을 만든 〈다모〉(2003), 한류바람을 일으킨 〈대장금〉(2003), 고조선 말기를 역사배경으로 설정하면서 신화와 역사적 인물의 상상적 관계를 그려낸 〈주몽〉(2006), 역사가 배경으로만 설정된 〈해를 품은 달〉(2012)에 이르기까지 MBC 역사드라마는 다양한 시도와 변용과정을 거쳐 왔다.

MBC 역사드라마들 대한 개별적인 비평과 평가는 적지 않지만, 이것들이 MBC 역사드라마의 구성과 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MBC 역사드라마의 변용(variation)과 변화(change)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변용이 형식이나 내용의 새로움이라면, 변화는 그 새로움이 하나의 장르관습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네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할 것이다. 첫째, MBC 역사드라마는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둘째, MBC 역사드라마는 역사서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용되어왔는가? 셋째, MBC 역사드라마는 어떤 역사인물들을 형상화했는가? 넷째, MBC 역사드라마 서사의 제보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 1969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MBC에서 방영된 전체 역사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MBC 역사드라마가 어떻게 창의적인 변용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심층인터뷰¹⁾의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이 연구는 1969년~2016년까지 총 98개의 역사드라마 목록을 제시하고, 분석항목(시대배경, 서사, 주인공, 형식, 서술방식 등)을 코딩했다. ([부록·2] MBC 역사드라마 목록: 1969~2016 참고).

시대배경은 총 49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한시대, 가야, 발해,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러말선초로 나누고, 조선시대의 경우, 배경이 되는 왕조(태조부터 순종까지)를 각각 항목으로 설정했다. 다만, 태종~세종, 문종~세조, 단종~성종, 문종~연산군, 중종~명종, 영조~정조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했다. 왜냐하면 역사드라마의 시대배경이 특정 왕조 한 시기에만 나타나기보다 걸쳐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모호한 조선'으로 구분했다. 이밖에도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해방, 구한말~6.25 이전으로 나누었다.²⁾ 49개의 시대배경으로 세분화된 코딩은 통계분석을 통해서 6개 항목으로 재코딩했다.

역사드라마의 서사는 7개 항목 — 고전·설화, 왕과 세도가 중심 야사, 역사 멜로드라마, 시대배경 중심, 인물중심, 민중의 삶, 의적과 무협 — 으로 범주화했다. 고전·설화는 설화, 민담, 전설, 고전소설 등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고, 왕과 세도가 중심 야사는 왕이나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관계나 애정문제를 극화한 것인데 정사(正史)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 멜로는 조선 시대 여성의 수난과 부부사랑을 다룬 것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모호하고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지만 신분제도와 봉건시대 가치관을 담고 있는 드라마이다. 시대배경 중심은 공인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정사에 토대를 둔 작품이다. 인물중심 역사드라마는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이다. 민중의 삶은 대체적으로 역사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당대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 드라마이며, 의적과 무협은 범죄, 수사, 추리 등을 포함하는데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적은 편이다.

역사 드라마 형식은 주간연속극, 일일연속극, 연속단막극, 주중연속극, 주말연속극으로 구분했다. 주간연속극은 일주일에 1회 방영되는 연속극, 일일연속극은 주중매일(4~5회) 방영하는 연속극, 주중연속극과 주말연속극은 각각 주 2회 편성되는 드라마이다. 연속단막극은 매주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는 드라마이다.

서술방식은 기록적 역사서술, 개연적 역사서술, 상상적 역사서술, 전형적 역사서술, 허구적 역사서술로 구분했다. 기록적 역사서술은 공식 역사기록을 토대로 구성된 드라마이고, 개연적 역사서술은 정사(正史)를 활용하지만 동시에 야사(野史)를 혼합하는 경우이며, 상상적 역사서술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상상적 관여가 중요시되는 드라마이다. 전형적 역사서술은 역사소설을 바탕으로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며, 허구적 역사서술은 모호한 시대배경 속에서 허구의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드라마이다.

1) MBC 역사드라마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 이병훈 PD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병훈 PD는 MBC 역사드라마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심층인터뷰는 2017년 9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병훈 PD의 개인사무실(여의도 라이프 오피스텔 615호)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에 앞서서 MBC 역사드라마 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후 궁금한 사항들과 역사드라마 제작 관련 비사(秘史) 등을 질문하고 논의했다. 인터뷰 내용은 [부록·1] 참고.

2) 타임 슬립 드라마인 〈닥터 진〉(2012)은 1편 뿐이어서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서사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반기(고종)로 코딩했다.

3. MBC 역사드라마의 시기변화

1) 역사드라마의 변화와 맥락

역사드라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외제적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제적 변용이다. 외제적 변화요인들은 사회적 맥락, 방송환경의 변화, 제작환경의 변화, 다른 방송사의 역사드라마들과 관련되고, 내제적 변화는 형식변화, 서사와 역사서술방식, 시대배경의 설정 등과 관계된다.

사회적 맥락이나 방송환경 변화는 특정 텍스트의 관습과 장르를 형성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이것은 특정 텍스트가 사회적 맥락과 방송환경 변화 등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장르 관습변화의 폭을 어느 정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내제적 변용은 사회변화와 별도로 특정 장르 자체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장르 관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제적 변용은 계기가 되는 선구적인 역사드라마의 영향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MBC 역사드라마 시기구분을 설정하는데 주목해야 할 시점은 1969년~1973년, 1981년~1983년, 1989년~1991년, 1999년~2003년이다. 이 시기의 경우 단순히 MBC 역사드라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표 1〉참고).³⁾

〈표 1〉 MBC 역사드라마의 변화 시점

시기	외제적 변화		내제적 변용		
	사회맥락	방송환경과 제작환경 변화	표현형식	표현내용(서술 방식 등)	주요 드라마
1969~1973	유신	· MBC개국(1969) · 방송3사 경쟁 · 민족사관 정책	· 일일연속극 · 주간드라마	· 민족영웅과 국난극복 · 개연성	· <장희빈>
1981~1983	제5공화국	· 컬러 방송(1980.12) · 공영방송체제 · 로케이션 촬영	· 주중드라마	· 기록성	· <조선왕조500년 시리즈>
1989~1991	1987년 민주화운동	· SBS개국(1993) · 방송민주화	· 주중주말연속극	· 개연성	

3) 역사드라마의 시기구분과 관련해서 i) 옛 이야기와 교양의 시기(1964~1971), ii) 경쟁과 국민계도의 시기(1972~1982), iii) 사실(史實) 추구의 시기(1983~1990), iv) 첩제와 모색의 시기(1991~1999), v) 상상의 역사서술 시기(2000~2016)로 구분할 수 있다(주창윤, 2017). 정영희(2005)는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서 역사드라마를 1) 옛 이야기 들려주기와 영웅 이야기(1964~1969), ii) 민족정신 함양(1970~1974), iii) 민족사관 정립(1975~1980), iv) 민족정체성 함양(1981~1986), v) 시련기 민족의 삶(1987~1991), vi) 역사 즐기기(1992~1995), vii) 시의성으로서의 역사(1996~현재(2005))로 나누었다. 반면, 제작자의 관점(혹은 생물학적 기능 분류 관점)에서 이병훈(1997)은 i) 초창기(1964~1968) 첫 역사드라마의 방영에서 KBS와 TBC의 제작 시기, ii) 발전기(1969~1975) 방송 3사의 경쟁시기, iii) 전환기(1976~1989) 정부의 편성통제에 따른 민족사관정립극 제작시기, iv) 전성기(1981~1990), v) 컬러 방송의 시작과 정사드라마 경쟁시기, vi) 첩제기(1991~1994) 역사드라마의 퇴조 시기, vii) 부흥기(1995~현재(1997))로 분류했다.

		· 역사드라마 제작 첩제			
1999~2003	IMF 경제위기	· 오픈 세트 확대 · 역사드라마 인기 장르 부상	· 역사배경 확대	· 상상의 역사 · 멜로드라마 · 탈민족	· <허준> · <대장금>

첫 번째 시기는 1969년~1973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방송 3사 드라마 경쟁은 치열했다. 1969년 MBC가 개국해서 제작한 첫 번째 역사드라마인 <회심곡>(김희창 극본, 유길준 연출)은 토요일 9시 25분에서 10시까지 방영한 주간연속극이었다. <회심곡>은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장희빈이 국모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남인들이 득세하자 서인 출신 양반가의 몰락과 애환을 다루었다.

MBC 역사드라마에서 계기가 되었던 작품은 <장희빈>(1971~1972)이다. <장희빈>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일일연속극으로 인기를 끌었다. <장희빈>은 역사드라마가 일일연속극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으리라 추측된다.⁴⁾ 또한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 정권은 1973년 봄 편성부터 주체적 민족사관을 제도하는 역사드라마 제작을 강요했다.

두 번째 시점은 1981년~1983년 기간이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컬러 방송(1980년 12월)이 시작되었다. TBC가 방송통합함으로 사라지면서 공영방송체제(KBS1, KBS2와 MBC)로 방송환경이 바뀌었다. 1981년 시작한 <고동마님>(MBC)과 <대명>(KBS)은 컬러로 제작되었고, 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대형화와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역사드라마도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로케이션 촬영(민족촌, 경복궁, 비원, 낙안읍성 등), 의상과 미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역사서술 방식에서 고증과 사료에 충실한 작품들이 1983년 전후 등장했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1983~1990)는 새로운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었다. 일일연속극이 줄어들면서 주중연속극이 주요 형식이 되었다.

세 번째 시점은 1989~1991년 사이로 민주화 흐름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폭발했던 시기이다. 방송도 정권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통제에서 벗어났으며, 드라마 소재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신세대 문화가 부상하면서 빠르고 경쾌한 트렌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었고, 역사드라마는 퇴조하기 시작했다. 역사드라마 형식은 주중·주말연속극으로 고정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1999~2003 사이에는 사회적 맥락이나 방송정책의 변화보다는 역사드라마의 내제적 발전이 두드러졌다. 여기서 중요한 작품은 <허준>(1999~2000)이다. <허준>은 상상적 역사 서술방식과 새로운 연출로 주목을 받았다. 이병훈은 <허준>의 연출원칙으로 빠른 전개와 편집의 정교화, 사료 중심에서 탈피, 조명과 화면의 형식미 추구, 미술부분(의상, 분장)의 변화, 현대 음악의 사용 등을 제시했다(이병훈, 2000). <허준>의 성공은 2000년 이후 역사드라마 제작방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형식과 시대배경의 변화

역사드라마의 형식은 주간연속극, 일일연속극, 연속단막극, 주중연속극, 주말연속극으로 변화되었다.

4) 1970년 <아씨>(TBC)는 일일연속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1971년 <장희빈>(MBC), 1972년 <여로>(KBS)로 이어지면서 일일연속극은 시청률 경쟁의 중심이 되었다. 물론 단순히 <장희빈>의 성공으로 역사드라마가 일일연속극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일일연속극은 시청률 경쟁 속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장희빈>이 역사드라마도 일일연속극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MBC 역사드라마의 형식변화는 1969년~1982년까지 일일연속극과 주간연속극이 주류를 차지했고, 1983년 이후부터 주중연속극이 편성되었으며, 1999년 이후부터는 주중연속극과 주말연속극이 다수를 차지했다.

〈표 2〉 시기별 역사드라마 형식

시기 형식	1969~1982	1983~1990	1991~1998	1999~2016	계
주간연속극	15(34.1)	1(7.1)	0	1(3.0)	17(17.3)
일일연속극	24(54.5)	0	0	1(3.0)	25(25.5)
연속단막극	1(2.3)	0	0	0	12(3.6)
주중연속극	4(9.1)	12(85.7)	7(100.0)	26(78.8)	49(50.0)
주말연속극	0	1(7.1)	0	5(15.2)	6(6.1)
계	44(44.9)	14(14.3)	7(7.1)	33(33.7)	98(100.0)

주중연속극은 〈여인열전 1화 장희빈〉(1981)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편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MBC는 〈여인열전 2화 서궁마마〉, 〈여인열전 3화 은장도〉, 〈여인열전 4화 황진이〉를 목요일과 금요일 편성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월화, 수목, 목금 등 일주일에 두 번씩 방영되었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제1화 〈추동궁마마〉부터 주 2회 편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병훈은 인터뷰에서 〈설중매〉 11회 때 방영된 계유정란이 전두환 쿠데타와 동일시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12회부터 주 2회 편성되었다고 회상했다. 주중연속극은 현재까지 역사드라마의 지배적 형식이다.

주말연속극은 1985년 개화기 시대 신분이 다른 세 여인의 인생을 그린 〈아무렴 그렇고 그렇고〉가 편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허구적 등장인물을 설정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역사 멜로 드라마였다. 1986년 KBS1도 선우휘의 소설을 극화한 〈노다지〉를 시작으로 주말연속극을 정규 편성하기 시작했다.

시대배경은 49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재설정했다. 조선 전반기는 태조에서 현종까지이고, 조선 후반기는 숙종에서 순종까지이다. 모호한 조선은 배경이 조선시대로 설정되었지만 어느 시기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다.

〈표 3〉 시기별 역사드라마 시대배경⁵⁾

시기 시대배경	1969~1982	1983~1990	1991~1998	1999~2016	계
고조선~남북국	0	0	0	6(18.2)	6(6.3)
고려~선조	2(4.8)	2(14.3)	0	5(15.2)	9(9.4)

5) 1971년부터 1979년까지 방영된 역사드라마는 총 24편이었는데, 〈소박대기〉(1971)와 〈역사의 인물〉(1978)을 제외하면 모두 일일연속극이었다.

6) 연속단막극인 〈역사의 인물〉(1978)과 〈민족풍속도〉(1981)는 시대배경이 혼합되어 있다. 매 회마다 다른 시대배경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시대배경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선 전반기	11(26.2)	6(42.9)	2(28.6)	9(27.3)	28(29.2)
조선 후반기	11(26.2)	5(35.7)	4(57.1)	8(24.2)	28(29.2)
모호한 조선	17(40.5)	1(7.1)	0	4(12.1)	22(22.9)
일제~6.25	1(2.4)	0	1(14.3)	1(3.0)	3(3.1)
계	42(43.8)	14(14.6)	7(7.3)	33(34.4)	96(100.0)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드라마가 81%로 압도적이다.⁷⁾ 조선 전반기와 후반기 비율은 29.2%로 같으며, 모호한 조선의 경우 1970년대 주로 제작된 드라마에서 배경이 되었다. 1970년대는 막연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여인들의 애환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대배경에서 MBC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83년~1990년대까지 러말선초⁸⁾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 드라마가 조선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조선에서 남북국 시대를 다룬 작품들이 2000년 이후 제작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몽〉(2006), 〈태왕사신기〉(2007), 〈선덕여왕〉(2009), 〈김수로〉(2010), 〈계백〉(2011), 〈제왕의 딸 수백향〉(2013) 등이 있다. 〈주몽〉은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고대사를 다루면서 고구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대했다.

3) 서사와 서술방식

역사드라마의 서사는 인물중심(31.6%), 멜로 역사(22.5%), 시대백락 중심(15.3%), 의적·무협(11.2%) 순이다. 1970년대 멜로 역사가 많았던 것은 여성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이고, 인물중심 역사드라마는 유신정권 이후 민족사관정립극이나 국난극복 드라마 제작이 강요된 것과 관계가 깊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 KBS나 TBC의 경우도 유사하다.

〈표 4〉 시기별 역사드라마 서사

시기 서사	1969~1982	1983~1990	1991~1998	1999~2016	계
고전·설화	2(4.5)	0	0	2(6.1)	4(4.1)
왕·세도가 중심	5(11.4)	0	0	1(3.0)	6(6.1)
멜로 역사	13(29.5)	1(7.1)	2(28.6)	6(18.2)	22(22.5)
시대백락 중심	1(2.3)	11(78.6)	1(14.3)	2(6.1)	15(15.3)
인물중심	13(29.5)	0	1(14.3)	17(51.5)	31(31.6)
민중의 삶	6(13.6)	0	2(28.6)	1(3.0)	9(9.2)
의적 무협	4(9.1)	2(14.3)	1(14.3)	4(12.1)	11(11.2)
계	44(44.9)	14(14.3)	7(7.1)	33(33.7)	98(100.0)

7) 시대배경은 KBS의 경우, 전체 135편 역사드라마에서 조선시대가 95편로 70.4%, TBC 50편 중 46편으로 92%, SBS 25편 중 17편으로 68% 등이다.

8) 1983년 〈추동궁마마〉는 주요배경이 러말선초이지만 조선 시대 배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단지 1편 〈대도전〉(大盜傳)(1989)만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대도전은 고려 공민왕 시대 의적 명왕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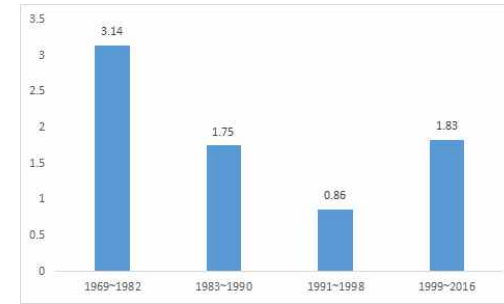
1983년~1990년까지 시대맥락 중심의 서사가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총 11편이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1998년 사이에는 역사드라마 제작이 침체되었던 시기로 특징적인 서사는 없는 편이다. 1999년 이후에는 인물 중심 서사가 51.5%나 되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의 성공과 로맨스를 결합한 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5> 시기별 역사드라마 서술방식

시기 서사	1969~1982	1983~1990	1991~1998	1999~2016	계
기록적 서술방식	1(2.3)	11(78.6)	0	0	11(11.2)
개연적 서술방식	13(29.5)	0	2(28.6)	4(12.1)	19(19.4)
상상적 서술방식	10(22.7)	0	3(42.9)	20(60.6)	34(34.7)
허구적 서술방식	19(43.2)	3(21.4)	2(29.6)	9(27.3)	33(33.7)
전형적 서술방식	1(2.3)	0	0	0	1(1.0)
계	44(44.9)	14(14.3)	7(7.1)	33(33.7)	98(100.0)

시기별 역사드라마 서술방식은 1969년~1982년 사이 허구적 서술방식이 가장 많았다. 대체로 모호한 조선을 배경으로 설정된 17편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고, 고전 소설 《채봉낭자전》을 각색한 <채봉전> (1980)과 고전 야담과 전설을 극화한 <전설야담> (1982)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연적 서술방식은 1970년대 중반 민족사관과 국난극복이 강조되면서 제작된 드라마들이다. 최무선의 일대기를 그린 <예성강> (1976), 이완 장군과 효종의 복벌을 다룬 <사미인곡> (1976), 김만덕의 일대기인 <정화> (情火)(1977) 같은 드라마들이 포함된다. 1999년~2016년 사이에는 서사의 대부분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상상적 서술방식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역사드라마 한 해 평균 제작편수는 1969년~1982년 3.14편에서 1983년~1990년 1.75, 1991년~1998년 0.86편으로 감소했다가 1999년 이후 1.83편으로 증가했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마지막 회인 <대원군>은 1990년 12월에 종료되었는데, MBC는 역사드라마 제작을 일시 멈추었고, KBS도 <역사가 흐른다> (1990년 8월 종료) 이후 곧바로 후속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1990년대 역사드라마는 제작 침체를 겪었다. 1990년~1999년까지 방송사별 한 해 제작편수는 0.83개에 불과했다. 한 방송사가 일 년에 1편 정도 제작할 뿐이었다.



[그림 1] 한 해 평균 제작편수

이병훈(1997)은 역사드라마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1988년 민주화 과정 이후 방송소제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소재의 확대를 꼽았다. 사회쟁점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제작되면서 역사소재는 뒤로 밀렸다. 또한 당시 신세대론이 부상하면서 트렌디 드라마의 열풍으로 역사드라마는 시청자의 관심 밖이었다. 1991년 개국한 SBS가 편성한 <유심초>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역사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적었다.

2000년 초반 각 방송사별로 주목할 만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역사드라마들이 등장하면서 전성시대를 맞이했다.⁹⁾ 역사드라마의 인기에 비해서 제작편수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영횟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2] 원작과 순수창작

원작각색과 순수창작 드라마 비중을 10년 단위로 보면, 원작각색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그

9) 대표적으로 200부작으로 방영된 <태조왕건> (2000~2002, KBS1), 150부작 <여인천하> (2001~2002, SBS), <허준> (1999~2000), <대장금> (2003~2004) 등을 들 수 있다. 평균 시청률을 보면, <태조왕건> 42.6%, <여인천하> 36.2%, <허준> 48.3%, <대장금> 46.3%였다(TNS자료). 2000년~2003년 사이 전체 텔레비전 드라마 평균 시청률은 14.7%였지만, 역사드라마 평균 시청률은 21.2%였다(주창윤, 2005).

림 2] 참고). 1980~1990년대 원작소설은 무협과 관련된 〈대검자〉(김병충), 〈대도전〉(윤백남), 〈일지매〉(최경주) 등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만화가 원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다모〉(방학기), 〈돌아온 일지매〉(고우영), 〈탐나는도다〉(김혜나), 〈닥터진〉(무라카미) 등을 들 수 있다. 〈상도〉(최인호)와 〈해를 품은 달〉(정은필) 이외에 소설을 원작으로 삼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4. 역사 서술방식의 창의적 변용과정

1) 정사(正史)로서 역사서술

역사드라마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어떻게 역사를 서술하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현재적 진술이라고 말할 때, 역사장르의 논쟁점은 ‘역사적 개연성’(historical probability)의 문제이다. 역사적 개연성은 ‘역사성’과 ‘허구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위치한다. 역사장르는 역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dark area)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메워지기 때문이다.

역사적 개연성이 갖는 이중성을 고려하면, 역사드라마의 서술방식은 일반적으로 ‘역사성’을 강조하는 역사서술과 ‘허구성’을 강조하는 역사서술로 분리된다. 쇼(Shaw)는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개연성을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으로 구분한다. 외적 개연성은 작품이 표현하는 세계(역사)를 충실하게 그려내는 것이고, 내적 개연성은 작품 자체의 내적 규칙과 패턴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다(Shaw, 1983, pp. 20~2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적 개연성이다. 왜냐하면 외적 개연성은 역사를 어떻게 허구 장르(드라마, 영화, 소설 등) 안으로 끌어들이는가의 문제라면, 내적 개연성은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허구 장르로서 드라마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사건과 인물을 그려내는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 서술방식과 관련하여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제1화 〈추동궁마마〉(1983)로부터 〈대원군〉(1990)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방영되면서 MBC 전체 드라마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야심적인 작품이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지만, 역사드라마 장르 내에서 역사 서술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기존의 역사서술과 다른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으로 정사(正史)를 드라마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¹⁰⁾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의 제1화인 〈추동궁마마〉의 역사 서술방식을 〈용의 눈물〉(KBS1, 1996~1998)과 비교해서 똑 같은 사건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비교해보자.¹¹⁾

10) 물론 여기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역사드라마 최초로 기록적 역사서술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83년 전후 기록적 역사서술은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뿐만 아니라 〈개국〉(1983, KBS1)이나 〈독립문〉(1983, KBS1)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개국〉이나 〈독립문〉과 달리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8년 동안 일관되게 기록적 역사서술 방식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11) 두 대사는 박경전(2010, 55~56쪽)에서 인용했다.

(〈추동궁마마〉 6회에서)

산야

이성계가 피투성으로 쓰러져 있다.

동투: 장군

이성계: (혼수상태)

동투: 장군!

이성계:

동투: 정신 차리라니까요. . . 장군!

해설: 이성계의 낙마. 참으로 불가사의 한 일이었다. 그가 말에 오르면 용마가 나는 것과 같았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말을 잡기를 잡아 일으킨 이성계가 낙마를 했으니 이를 어찌 놀랍다 하지 아니하겠는가.

해주의 객사

이방원이 이성계의 땀을 닦아주고 있다.

이성계: (깨어나듯) 저하는 . . . 세자 저하는 어찌 되었느냐!

이방원: 심려마시오소서. 무사히 환궁하실 것이 옵니다.

이성계: 이런 불충이 있다.

(〈용의 눈물〉 5회와 7회에서)

산야

이성계가 쓰러져 있다.

동투: 형님! 형님! 동투란 이름입니다. 정신차이리오소서. 형님!

이성계, 죽은 듯이 전혀 반응이 없다. 선혈이 낭자하다.

이성계 집 안

이방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깜짝 놀란다. 이성계가 정정히 앉아 있었던 까닭이다.

이방원: 아버지! 어찌해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성계: 시중(정몽주)의 생각과 가는 길이 비록 나와 다르다 하나 그에게 은혜를 내려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것이니라. 나는 그를 새로운 조정에 중신으로 맞고 싶은 것이니라.

이성계의 낙마사건은 조선 건국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하고 와서 최영과 정몽주 등과 투쟁하면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낙마하여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정몽주 등은 이성계를 몰아내고자 자객을 보내려 했고, 정도전, 남은 등을 쫓아내려 했다. 정몽주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곧바로 고려왕조를 무너졌다.

〈추동궁마마〉는 이성계의 낙마사건을 기록대로 그려낸다. 이성계는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고려의 세자를 맞으러 해주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추동궁마마〉의 해설자는 “절벽으로 떨어지

는 말의 같기를 잡아 일으킨 이성계가 낙마”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만 설명한다. 불가사의한 사고로 본 것이다. 이성계는 낙마로 혼란한 후 깨어나면서 자신이 세자의 환궁을 호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

반면 〈용의 눈물〉에서는 이성계의 낙마 사건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상상력이 추가된다. 작가는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진다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 말을 타고 전투를 한 이성계가 실수로 낙마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작가의 상상력에 따르면, 이성계의 낙마사건은 시중 정몽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도전의 계략이었다.

이성계에 대한 묘사도 〈추동궁마마〉와 〈용의 눈물〉은 완전히 다르다. 이성계는 〈추동궁마마〉에서 말에서 떨어진 후 고려의 신하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만, 〈용의 눈물〉에서는 이미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추동궁마마〉에서 보듯이,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은 역사드라마 작가가 역사가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을 취하는 역사드라마는 공적 기록을 그려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성과 허구성 사이 갈등은 크지 않다.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건의 외적 현실을 재서술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입장을 따른다.¹²⁾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는 서사의 기본 플롯으로 구성된다.

〈용의 눈물〉은 기록에 의존하면서 작가의 상상력을 확대했다. 이것은 개인적 역사 서술방식으로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과 차이가 난다. ‘개인적 역사 서술방식’은 역사드라마가 역사에 대한 보완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역사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지만, 부족한 역사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작가의 논리적 상상력이 개입된다. 드라마는 중요한 사건(중핵)과 중요한 사건을 지지하는 작은 사건들(위성)로 구성된다. 개인적 역사 서술방식은 역사적 사건으로 중핵을 이야기의 중심 고리로 활용하지만, 위성의 역할을 하는 작은 사건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운다. 이성계의 낙마사건을 우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지닌 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성계의 낙마사건은 작가의 상상력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 역사 서술방식은 현실과 알레고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역사 자료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의 제2화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정사의 활용은 확장되었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작가 신봉승은 “정사를 기초로 한 역사드라마는 문학적 상상력보다 역사적 사실의 고증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시대를 복원하기 위해 의상 845점, 장신구 3,364점, 소품 18점 등 미술제작비만 6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83년 8월 5일자).

〈뿌리 깊은 나무〉(1983)는 세종의 연대기이다. 첫 회 세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심은(세종의 장인)의 죽음, 태상왕 태종과 세종의 관계(총 29회 중 태종은 13회에 등장한다), 대마도 정벌, 장영실 등용과 업적,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다양한 과학기술 발명, 세종과 양녕대군의 관계, 김종서의 여진족 정벌, 훈민정음 창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밖에도 작은 에피소드들로 세종의 《태종실록》 친람 문제, 빈궁의 거저임신과 나인 소쌍과의 동성애, 삼강행실도 발간을 기념해서 여든 님은 노인들의 대궐 초대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2) 역사드라마가 기록적 서술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개인성이나 허구적 상상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역사적(historical)’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그것이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마지막 회에 나온다. 〈뿌리 깊은 나무〉(1983)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태종과 세종, 세종과 양녕, 과학기술의 발명, 군사력 강화(왜구, 여진족) 등인데, 장영실과 관련된 내용이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많이 나온다. 세종이 풍질(風疾), 창(瘡), 당뇨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민본정치를 수행해왔다는 치적을 다룬 것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서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역사드라마는 극적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다.¹³⁾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이 인과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기록만으로 채우면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야사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허구적 서술방식을 사용했던 이전의 역사드라마 서술방식과도 완전히 다르다.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종영된 이후에도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필자가 모든 역사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명확히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2000년 이후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드라마는 〈명성황후〉(2001, KBS1), 〈임진왜란 1592〉(2016, KBS1) 등이다. 〈명성황후〉는 기록적 역사서술과 더불어 의상 등 고중에 충실했던 드라마였다면, 〈임진왜란 1592〉는 드라마적 요소보다는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역사를 재연함으로써 정사를 충실히 그려냈다.

정사를 활용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기록적 역사서술방식은 1980년대 MBC 역사드라마의 핵심이었다. 비록 1990년대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 서술방식이 드라마에서 소멸했지만,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역사스페셜〉이나 〈한국사 전〉 등과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들은 기존의 다큐멘터리 요소에 드라마의 재연을 활용함으로써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었다. 199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는 상상적이거나 허구적 요소들이 강조되었고, 정사의 기록에 대한 내용들은 역사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2) 상상적 역사의 구성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기록적 역사서술 방식의 지평을 열었다면, 〈허준〉(1999~2000)은 상상적 역사서술의 계기를 제공한 작품이다. 상상적 역사서술은 1970년대 허구적 역사서술이나 개인적 역사서술, 1980년대 기록적 역사서술방식과는 대조된다. 상상적 역사서술은 역사적 재료보다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지배한다. 역사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사(正史)에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이 역사드라마의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상상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허구적(fictive)’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등장인물은 실존인물이고 주요 사건들은 역사기록을 따르지만 대부분 인물관계와 인물설정, 그리고 주변 사건들은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가적 상상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상상의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들은 중핵의 사건이나 주요 인물만 실존할 뿐 주변 인물이나 인물들의 성격과 행위 등은 모두 작가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다. 허준, 대장금, 동의 등에 대한 정사의 기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가 역사드라마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¹⁴⁾

13)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중에서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한 작품으로 〈뿌리 깊은 나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14) 허준이나 대장금에 대한 역사기록은 거의 없다. 허준의 경우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간략하게 몇 줄 나올 뿐이며, 대장금의 경우 실존인물인지도 불확실하다. 이병훈 PD에 의하면, 《중종실록》에 “내 병은 장금이가

〈허준〉의 성공 이후 역사드라마의 상상적 서술방식은 현재까지 지배적인 역사서술 방식으로 위치하고 있다.¹⁵⁾ 〈허준〉의 역사 서술방식은 〈대장금〉(2003~2004), 〈주몽〉(2006), 〈이산〉(2007), 〈동이〉(2010), 〈마의〉(2012), 〈옥중화〉(2016)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드라마들은 상상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분명한 역사적 시기를 제시하면서 출발한다. 〈허준〉의 출발점은 1568년(선조 1년) 평안도 의주이고, 〈대장금〉은 1482년 성종 13년 폐비 윤 씨 사건이며, 〈이산〉은 극적으로 1762년 영조 38년 5월 19일로 사도세자가 죽기 전날이다. 〈동이〉는 1681년 숙종 7년으로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심했던 시기로 설정되어 있다.

상상적 역사서술 역사드라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고, 그 시대에 있었던 권력관계를 기본 축으로 설정한 다음, 천민이나 서민, 혹은 중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권력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비주류의 성공신화를 그려낸다. 각각의 역사드라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만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상상적 역사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허준〉과 〈대장금〉은 2000년 이후 역사드라마 서술방식의 전형으로 영웅 신화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다. 상상적 역사서술 드라마들은 고전 영웅서사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설정부터 조력자의 역할, 방해자의 등장, 목표설정 등은 전형적인 고전 영웅서사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⁶⁾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이나 출생의 한계를 갖고 태어나지만 비범함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고향이나 가족관계로부터 떠나거나 추방당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통과의례를 겪는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취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영웅서사를 따른다.

대부분 영웅서사가 그렇듯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등장인물의 운명을 말해준다. 〈대장금〉 첫회에서 도사는 장금의 아버지 서천수를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네 운명을 세 명의 여인이 쥐고 있구나. 첫 번째 여인은 네가 죽이나 죽지 않을 것이요. 두 번째 여인은 네가 살리나 너로 인해 죽을 것이며, 세 번째 여인은 너를 죽이나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첫 번째 여인은 폐비 윤 씨이고, 두 번째 여인은 장금의 어머니인 박 나인이며 세 번째 여인은 장금이다. 〈동이〉의 경우도 도사는 장희빈에게 어떤 여인(결국은 동이를 의미함)이 희빈이 가진 것을 모두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고전 영웅서사의 전략을 따르지만, 현대적으로 변용한다. 역사드라마가 사서(史書)에 충실한 기록적 역사서술로 진행되었다면, 현대적 변용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 얽매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변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역사드라마의 현대적 변용은 역사기록의 과편들을 가지고 상상적으로 그려진 이야기들과 지금의 현실이 아래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역사가 다루어지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와 관계를 맺는다. 〈허준〉과 〈상도〉와 같은 역사드라마는 IMF라는 경제위기와 상동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무너진 남성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허준〉과 〈상도〉의 홈페이지에 있는 기획 의도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경제위기로 고통과 희망을

안다”는 진술밖에는 없다.

15) 〈허준〉 이후 MBC 역사드라마는 유사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한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대장금〉(2003~2004), 〈주몽〉(2006), 〈이산〉(2007), 〈동이〉(2010), 〈마의〉(2012), 〈옥중화〉(2016) 등으로 이어진다. 대체로 이 작품들은 이병훈이 연출했고, 작가로 최완규, 김이영 등이 참여했다.

16) 조정래(2007)도 〈대장금〉의 서사가 고전 영웅서사로 목표 세출(출생)-현실모순(성장)-결여(위기)-행동(투쟁)-결말(성취)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잃어버린 대중들에게 성공신화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허준〉이 방영되었을 당시에는 의약분업으로 적지 않은 사회 갈등을 겪었다.¹⁷⁾ 이때 〈허준〉은 의원의 길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상상적 서술방식의 드라마들은 멜로드라마의 상상력을 결합한다. 이들 역사드라마들은 공통적으로 이중 플롯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의 성공과정을 그려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멜로드라마의 애정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주혜정(2002)은 〈허준〉의 플롯 구조가 의원으로서 허준의 성공기와 인간 허준의 삶과 사랑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지적하는데 다른 드라마들 역시 마찬가지다. 임상옥이 조선 제일의 거상이 되는 성공기와 다녕과 미금의 삼각관계, 장금이 생각시부터 최고상궁과 임금의 주치 의관으로 성공하는 과정과 민정호와 중종의 삼각관계 등 유사하다.

멜로드라마 상상력은 ‘엇갈린 사랑’을 기저로 깔고 있다. 허준이 예진과 만나 사랑하지만 결혼은 대화와 하는 것처럼, 임상옥은 다녕을 만나 사랑하지만 미금과 결혼한다. 임상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주명의 딸 다녕을 사랑하지만 ‘엇갈린 사랑’으로 이들은 송상(松商)과 만상(灣商)의 대행수(大行首)로서 경쟁관계에 놓이며 비극적 사랑으로 이어진다. 다른 역사드라마들에서 ‘엇갈린 사랑’은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음모와 질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운명적 사랑은 긴장을 풀어준다.

‘엇갈린 사랑’의 구조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양식이다. 그러나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기존 멜로드라마와 차이를 보인다. 기존 멜로드라마에서 ‘엇갈린 사랑’은 대체로 도덕성과 윤리문제를 제기하지만, 역사드라마는 불륜이나 사생아와 같은 도덕문제를 그려내지 않는다. ‘엇갈린 사랑’에 기대고 있으면서 ‘이상적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불륜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사랑은 개인적 욕망과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 그 자체로써 그려진다. 허준과 예진, 임상옥과 다녕, 장금과 민정호, 〈이산〉에서 송연과 박대수, 〈동이〉에서 동이와 차천수 등의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이상적 사랑’이다. 이들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기도 하다. 허준, 임상옥, 민정호, 박대수, 차천수 등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에서 오는 ‘엇갈린 사랑’은 선악대비가 분명한 멜로드라마의 이기적 사랑과 차이를 보인다.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가 형성되지만,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 등장인물이 악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랑은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 사이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멜로드라마에서 공적 관계가 사라지고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것과 대비된다. 상상적 역사드라마에서 사랑은 사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계 속에서 위치되며 역사적 공간과 맥락 안에 놓인다.

17) 황인성(2000)은 〈허준〉이 방영되는 시점에서 경험했던 분열증적 현상들(2000년 4.13총선 때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혼란스러운 모습과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정계와 의학계가 보여준 파행적 행위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의 사고방식에 감염되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허준〉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공동체의 회복, 이타주의를 그려냄으로써 대중은 이를 수 없는 공동체 회복의 욕망을 〈허준〉을 통해서 충족했다고 지적한다.

5. 역사 인물의 발견과 해석

1) 역사 인물의 형상화

역사드라마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어떤 역사적 인물을 설정하는가이다. MBC를 포함해서 전체 방송사들의 역사드라마 주인공은 이성계 · 이방원 8회, 장희빈 6회, 이완 · 효종, 대원군 각 5회 세종, 세조, 정난정, 혜경궁 홍씨, 영 · 정조, 허준, 이순신이 각 4회, 김유신, 인수대비, 황진이, 광해군, 홍국영, 김옥균이 각 3회 등장했다.¹⁸⁾ MBC 역사드라마 주인공은 허준 4회, 장희빈 3회, 대원군, 정난정, 혜경궁 홍씨, 영 · 정조가 각 2회씩 등장했다. 여기서 MBC 역사드라마 주인공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은 장희빈과 허준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만 해도 장희빈이라는 제목으로만 〈장희빈〉(1971~1972, MBC), 〈여인열전 제1화 장희빈〉(1981, MBC), 〈장희빈〉(1995, SBS), 〈장희빈〉(2002~2003, KBS2),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SBS) 다섯 번이나 제작되었다. 드라마 제목이 장희빈은 아니지만 〈인현왕후〉(1988, MBC)에서도 장희빈은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데,¹⁹⁾ 이것까지 합치면 장희빈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서 6회나 주인공으로 나왔다. MBC 역사드라마에서 장희빈은 3회 등장했다. MBC가 형상화한 장희빈이 대중적 인물로 부상함으로써 다른 방송사들도 장희빈을 흥미로운 인물로 변주했다.

물론 장희빈이 MBC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기 이전에도 라디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목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장희빈은 1960년 라디오 연속사극 〈장희빈〉(이서구 극본, HLKA(KBS))에서 인기를 끈 이후 영화, 텔레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라디오 드라마 〈장희빈〉은 당시 100만 청취자가 들었다고 광고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토대로 1961년 김지미 주연의 영화 〈장희빈〉(정창화 감독, 임희재 극본)이 제작되었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1968년에는 남정임 주연 〈요화 장희빈〉(임권택 감독, 장천호 극본)도 제작되었다. 두 영화는 임희재와 장천호가 극본을 썼지만, 원작은 이서구의 라디오 드라마였다. 1961년 장희빈에 비해서 1968년 장희빈은 ‘요화’(妖花)라는 제목에서 보듯, 훨씬 더 악독하게 묘사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 〈장희빈〉(1971~1972, MBC)의 극본 역시 이서구가 썼다. 첫 텔레비전 드라마 〈장희빈〉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질투의 화신이면서 사악한 여인으로 그려졌음은 분명하다. 아마도 이서구는 라디오나 영화에서보다 더 사악하게 장희빈을 그려냈을 것이다. 장희빈은 오직 속종의 사랑만을 받고 질투와 사악한 욕심에 빠져 있는 ‘악독한 요화’였으며, 속종 시기의 정치맥락 속에서 그려지지 않았다. 영화에서 그려냈던 장희빈과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서구 씨가 쓴 〈장희빈〉은 드라마가 되기 위한 기승전결이나 극적인 압축성이 떨어졌어요. 그냥 라디오 드라마를 텔레비전 드라마로 바꾸었을 정도, 이야기 중심이었어요. . .

18) 역사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구자가 모든 역사드라마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료만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인공은 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1964년에서 2016년까지 제목과 내용만으로 주인공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한 명씩 선정한 결과이다. 다만 이성계와 이방원, 영조와 정조, 이완과 효종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공동 주인공으로 산정했다.

19) 이병훈은 인터뷰에서 1988년 〈인현왕후〉를 제작했는데, 제목만 〈인현왕후〉이지 장희빈 이야기였다고 진술했다. 장희빈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드라마 제목을 바꾸어보자고 해서 제작한 것이 〈인현왕후〉라는 것이다([부록 · 1] 참고).

(생략) 이야기의 진전이 없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아주 못되게 굴고 혼내주고 약쳐처럼 구는 것을 반복했어요. 나인이나 임금, 후궁에게 막대하고. . . (그렇지만) 1971년 〈장희빈〉 이전 역사드라마들은 몇 회 정도로 본격적인 작품으로 볼 수 없고, 1971년 〈장희빈〉이 본격적인 드라마였어요. . . 1981년 〈장희빈〉은 제대로 된 드라마였어요. 그것은 컬러 텔레비전 시대에 방영되었고 드라마적인 구성이 제대로 되었어요. 임충 씨가 썼어요. 권력관계 속에서 장희빈을 그려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이병훈 인터뷰, [부록 · 1] 참고).

장희빈이 초기 영화와 다르게 묘사된 것은 〈여인열전 제1화 장희빈〉(1981 MBC)이다. 이때부터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운명은 정치 세력과 연관 지어 묘사되었다. 남인의 지지를 받는 장희빈과 서인의 지지를 받는 인현왕후는 권력투쟁의 중심에서 경쟁했다. 이것은 〈인현왕후〉(1988, MBC)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980년대 장희빈은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그려졌다. 장희빈이 사랑의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김아네스(2004)는 1995년과 2002~2003년 〈장희빈〉은 ‘신분상승을 꿈꾸는 여인’이었다고 말한다. 장희빈은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MBC 역사드라마에서 그려낸 사악한 여인, 권력투쟁의 희생양, 운명의 개척이라는 장희빈의 서사는 다른 방송사의 〈장희빈〉에서 변주된다. 1995년 〈장희빈〉(SBS)은 매혹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속종과의 사랑을 끌어들었다. 마지막 회 해설자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 . 두 사람은 당쟁을 배경으로 속종이라는 한 남성을 놓고 사랑을 다투었다.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똑같은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장희빈이 미워할 수 없는 영리하고 귀여운 여인이라면, 인현왕후는 향기 그윽한 여인이었다”고 정의한다. 2002~2003년 〈장희빈〉(KBS2)도 주인공으로 부(富)를 축적한 장현의 딸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만 드라마 후반부에서는 예전의 이미지였던 사악함으로 다시 돌아갔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SBS)는 이전 장희빈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 우선 제목이 장희빈이 아니라 장옥정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정치권력 속에 놓여 있는 장희빈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장옥정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옥정은 왕실의 옷이나 이불을 만드는 침방나인으로 궁궐 생활을 시작한다. 장옥정은 뛰어난 패션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패션 디자이너이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기와 속종과의 사랑이라는 두 개의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장옥정이 사약을 받는 장면에서도 “전하. . . 이리 전하의 품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장옥정, 전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속종 역시 죽어가는 장옥정을 안으면서 사랑했다고 울부짖는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1960~1970년대 장희빈의 사랑을 끌어오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생을 개척하는 여성 이미지를 결합했다.

장희빈의 소환은 텍스트 내재적 변화의 결과이면서 시대에 따른 재해석이기도 하다. 우선 텍스트 내재적 변화는 1960~1970년대 ‘사악한 요화’ 이미지에서 장희빈이 고정되었다가 맥락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가 바뀌면서 ‘권력의 희생양’으로 재해석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인 신분을 극복하는 인물로, 2013년에는 과거적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서 동시에 운명적 사랑의 인물로 재소환했다. 초기 이미지인 약녀로만 계속 장희빈을 그려내는 것은 더 이상 시청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된 이미지로부터 탈피해온 것이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장희빈을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면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물로 이끌었다.

장희빈이 MBC 역사드라마를 통해서 매력적인 드라마 주인공으로 위치되면서 다른 방송사들도 흥미 있는 인물로 다루었다면, 허준은 MBC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대체로 매력적인 역사드라마 주인공들은

방송사와 관계없이 반복되어 등장하지만, 허준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방송사도 허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적은 없다. 허준은 그동안 4번 MBC 역사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

1975년 9월부터 1976년 4월까지 〈집념〉(143회)(이은성 극본, 표재순 연출), 1991년 11월에서 12월까지 〈동의보감〉(14부작)(이상현 극본, 이재갑 연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허준〉(64부작)(최완규 극본, 이병훈 연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된 〈구암 허준〉(135회)(최완규 극본, 김근동, 권성창 연출)이 있다. 이은성 작가가 1975년 〈집념〉을 집필한 이후 소설 《동의보감》을 출간했고, 〈동의보감〉, 〈허준〉, 〈구암 허준〉은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집념〉이 허준을 발견한 첫 번째 드라마였다면, 〈동의보감〉은 역사드라마 칩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획된 미니시리즈였으며, 〈허준〉은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이끈 선도적인 작품이었다. 〈구암 허준〉은 일일연속극이라는 과격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²⁰⁾

소설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허준 역사드라마들의 기본적인 이야기 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천출 출신 허준이 출생의 한계로 고난을 겪고 명의(名醫)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지만 말년에 《동의보감》을 저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설정이나 서사전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동의보감〉하고 〈허준〉은 주변 인물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동의보감〉은 소설 《동의보감》을 그대로 각색했어요. 내가 만든 〈허준〉은 《동의보감》의 20% 정도만 따오고 나머지는 전부 픽션으로 만들어냈어요. 〈동의보감〉은 소설 《동의보감》과 똑같아요. 〈동의보감〉은 임진왜란 이후 이야기가 없어요. 〈허준〉은 임진왜란을 길게 다루었어요. 임진왜란이 8~9회 나왔어요. 〈동의보감〉에는 임진왜란이 안 나와요. 이은성 씨가 소설 《동의보감》을 세 권으로 썼는데 완성된 책이 아니었어요. 도중에 이은성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오지 않아요. 〈허준〉에서 임진왜란은 중요해요. 허준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의서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의서가 필요하구나. 임진왜란이 책을 쓰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예요.(이병훈 인터뷰, [부록·1] 참고).

작가 이은성이 〈집념〉시나리오를 쓰던 당시 신숙주의 일대기를 그린 〈충의〉(1974, KBS), 개화기 시대를 연대기적으로 그려낸 〈미명〉(1976, KBS), 최무선의 일대기를 그린 〈예성강〉(1976, MBC)과 〈거상 임상옥〉(1976, MBC) 등을 집필했다. 〈충의〉는 국난극복드라마이고, 〈예성강〉과 〈거상 임상옥〉은 민족사관 정립극이었다. 물론 여기서 국난극복드라마나 민족사관 정립극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표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시 민족영웅에 대한 인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것이 역사드라마의 한 경향이었다. 〈집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드라마로 볼 수 있다. 〈집념〉의 작가 의도는 이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자기의 천직에 관한 불굴한 사명감. 입금에 대한 충성심, 불행한 동포에게 헌신한 고귀한 휴머니티. 한자로 된 의사를 내 나라의 한글로 번역한 민족의식, 서족(庶族)이라는 출세가 제한된 신분에서 출발 의원 최고의 영광인 어의에 이른 가슴 벅찬 영광과 고난 그러나 서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재능 때문에 주위의 끊임없는 질시와 방해와 도전을 받아야 했던 하인적(何人的)인 불행(〈집념〉 시놉시스)²¹⁾

20)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드라마가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된 〈구암 허준〉이 처음이다.

21) 시놉시스 제목은 〈허준의 일생〉으로 되어있다. 〈허준의 일생〉이 〈집념〉으로 제목이 변경되었고, 시놉

〈집념〉에서 허준은 서울 출신이라는 신분에 분노하고 싸움꾼의 삶을 살다가 퇴기(退妓) 딸인 초연이 세도가 최 대감의 늪은 아버지에게 동첩(童妾)으로 시집가게 되자 그녀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다. 산청에서 유의태를 만나서 의술을 배우고 임진왜란 기간에 선조의 병을 치료하면서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모함으로 파직당했으며, 다시 복귀하는 귀경길에서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치료하고, 《동의보감》을 쓰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허준은 서족 출신이라는 사회제도에 분노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이면서 《동의보감》을 쓰라는 선조의 명을 받는 충신이고 소복과 대복의 파벌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 손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다. 따라서 〈집념〉에서 허준은 성공신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충효의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이다.

〈동의보감〉에서도 허준은 역적의 딸인 다희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병을 고쳐준 순득과 결혼하며 신분상승의 욕구가 강한 인물이다. 집안에서는 가장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윤리가치에 충실한 가부장적 인물이다. 허준의 신분상승 욕구는 서민적이기 보다 양반적 풍모를 보이며 어의가 되겠다는 강한 성공 신념을 갖고 있다. 〈동의보감〉 도입부에서 광해군의 내레이션을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을 높게 평가한다.

〈허준〉은 〈동의보감〉과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만, 성공신화와 더불어 삼각관계가 이야기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 〈허준〉에서 허준은 〈집념〉이나 〈동의보감〉에서 보여주었던 당파싸움의 희생양으로 강조되지 않는다. 〈허준〉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나오듯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양반적 풍모를 강하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허준〉에서 허준은 더 인간적이며 어의가 되겠다는 신분상승의 욕망보다는 의원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을 대신하는 손이라는 희생과 배려가 강조된다. 이 점은 〈구암 허준〉에서도 마찬가지다.

MBC 드라마에서 허준의 인물성격은 장희빈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 〈집념〉에서 허준은 1970년대 중후반 인물중심 역사드라마에서 보여주듯이 선조에게 충성하고, 파벌싸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한 인물이다. 서울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드라마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집념〉의 허준은 네 드라마에서 가장 봉건적인 인물인 셈이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로 강조되지만 여전히 전통적 윤리가치에 충실한 가부장적 인물이다. 기개가 있으며 고결한 모습으로 허준이 묘사되면서 사회에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다.

허준은 삼적대사가 의술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올바른 의원은 병들기 전에 다스리는 것인데, 병을 예방하고 몸을 보양하는 섭생의 이치를 깨우치려 해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양식이 다 떨어진 판에 무슨 보양이고 섭생인가?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것을 모두 굶어가는 형편에 어찌 의술의 정도를 퍼 보일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임진왜란 이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현실을 비판한다.

반면 〈허준〉과 〈구암 허준〉에서 허준은 이전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당파싸움의 희생양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가부장적 인물도 아니며 양반적 풍모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더욱이 《동의보감》의 집필이 강조되어 나타나지도 않는다. 허준이 이러한 성취보다는 인간적인 배려와 헌신이 강한 인물이라면 서도 낭만적 인물로 묘사된다.

시스 줄거리는 〈집념〉의 줄거리와 약간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허준 아내 초연은 성폭행 이후 자살하는 내용이 시놉시스에는 있지만, 〈집념〉에는 없다). 〈집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줄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역사인물의 재해석

MBC 역사드라마의 인물해석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주몽, 광개토대왕, 대장금, 선덕여왕이다. <주몽> (2006~2007)은 고대사를 끌어들이 성공한 작품이면서 고구려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²²⁾ <주몽>은 상상의 역사로 등장인물을 매력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몽>은 신화와 역사가 뒤섞여 있는 고구려 건국사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배워간다.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는 한나라에 저항하는 고조선 유민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훗날 주몽의 부인이 되어 고구려 건국의 주역이 되는 소서노(召西奴)는 대상단(大商團) 연타발의 딸로 그려진다. 금와왕은 유화부인을 궁으로 데려오고 해모수의 아들 주몽은 금와를 의붓아버지로 삼아 이복형제에게 미움을 사고 궁에서 쫓겨나 고구려 건국의 길로 들어선다.

가장 매력적으로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된 인물은 주몽뿐만 아니라 해모수이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모수는 하늘의 아들로 유화와 관계하여 주몽을 낳은 신화적 인물이다. <삼국유사>에는 “하늘에서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 온 해모수가 스스로 왕이라 일컬으며 국호를 북부여라 칭했다”,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가 하늘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도움을 옮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삼국사기>에는 “유화가 말하기를 여러 동생과 나가 노는데 그 때 한 남자가 스스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 나를 웅심산 아래 압록수가의 집으로 피어서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등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은 신화적 인물 해모수가 한나라에 저항하는 고조선 유민의 영웅으로 그려지면서 주몽이 왜 고구려를 건국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 기록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명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드라마 <주몽>은 고구려 건국 이유로 고조선 유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였다는 정당성을 제시한다. <주몽>의 역사배경은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한나라가 지배하고 한민족의 유민들이 방황하던 시기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민족을 되살린 영웅으로 주몽을 부활시켰다.

<주몽>은 강력한 가부장제를 표현한다. 주몽은 변형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주몽은 출생의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고조선 유민과 다물군을 이끌고 한나라와 싸운 해모수라는 것을 모른다. 주몽은 출생의 비밀 속에서 오늘날 상실되고 있는 가부장제를 복원한다. <주몽>에서 해모수는 역시 한민족의 부성애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주몽은 이를 계승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한다. 주몽은 아버지의 부재(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속에서 또 다른 민족적 가부장제를 추구하는 인물로 재해석되었다.

상상의 역사를 극단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는 <태왕사신기> (2007, MBC)다. 정확히 말하면, <태왕사신기>는 상상의 역사가 아니라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의 역사를 그려낸다. 시간과 역사가 의도적으로 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왕사신기>는 신화의 재해석을 통한 판타지의 세계로 광개토대왕을 재해석한 드라마이다. <태왕사신기>는 고조선과 고구려라는 2천년의 시간적 거리를 담덕을 통해서 접목한다. <태왕사신기>는 담덕이 주신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는 환웅과 단군의 후예가 아니라 환웅의 환생이다. 담덕이 나타날 때까지 세상은 참된 왕을 갖지 못한 시대였다. 환웅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테리고 온 풍

22) <주몽> 이전까지 고려 이전을 다룬 역사드라마는 최초의 역사드라마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전설을 다룬 <국토만리> (1964, KBS), <삼국통일> (1974, KBS), <삼국기> (1992~1993, KBS1) 세편뿐이었다. <삼국기>는 당시로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대중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백, 우사, 운사는 신화 시기에서 자연물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웅녀와 호녀는 가진과 새오로 인물화되어 있다. 담덕이 등장하면서 풍백은 백호, 우사는 청룡, 운사는 현무로 대체된다. 주작은 변용되어 주작(수지니)과 흑주작(기하)으로 구분된다. 신화시대 가진과 새오가 수지니와 기하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설정은 고구려 벽화로부터 나온 상상력의 발현이다. 드라마의 공간이 신화의 공간으로 대체된 것이다.

<태왕사신기>는 광개토대왕과 고구려 역사에 대한 핵심 이미지만을 호출했다. 사실에 기초한 권력관계와 갈등보다는 절대 악과의 대결이 갈등의 중심에 놓이며, 중원의 사신(四神)사상과 단군 신화의 삼사(三師)를 상상력으로 접목해서 새로운 인물을 변형하고 재창조한 것이다. 특히 사신 가운데 주작(朱雀)의 경우, 두 여성인물(주작과 흑주작)로 분화되어 주인공과 멜로드라마의 구도를 형성하는 판타지 전략을 사용했다(백소연, 2014).

과거 역사드라마에서 여성인물은 특정한 범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가부장제도 내에서 남편에게 헌신하고, 시부모에게 구박을 받는 애환적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여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멜로 역사물이 여기에 속한다. 여성인물들은 허구적으로 설정되었다. 반면 역사인물의 경우는 장희빈,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 인목대비, 인수대비 등이다. 이들은 역사의 격동 속에서 주체적인 모습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왕조사를 기반으로 역사드라마가 설정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장금>과 <선덕여왕>은 기존 여성 주인공들과는 차별화되어 표현되었다.

<대장금>은 비주류 여성의 삶을 잘 보여준다. 김태연(2007)은 <대장금>의 현대적 변용으로 기존 영웅서사들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여성의 자질(미각, 감각 등)을 바탕으로 한 위기극 복을 제시하는데, 이는 현대의 문화흐름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성성·주변성에 대한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장금은 현대사회가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남성성(호기심·도전정신 등)도 함께 겸비한 이상적 인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대중성의 토대를 갖췄다고 지적한다.

장금의 인물형상화는 궁적 영역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여성의 욕망을 투영시킨 것이다. 장금은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보아왔던 전형적인 여성상과 차이를 보인다. 자기희생적인 여성형도 아니고, 장희빈, 장녹수와 같은 요부형도 아니다. 김은진(2004)은 <대장금>의 새로운 여성 리더십에 주목하고, 이동후(2004)는 ‘여성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하효숙(2004)은 <대장금>이 그동안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여성적 가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꿈꾸게 했다고 말한다. 장금은 여성의 요리라는 가부장적 제도를 넘어서서 요리를 통해서 궁적 관계로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천민출신의 장벽을 뛰어 넘는 새로운 유형인 셈이다. 장금의 인물형상화는 <동이> (2010), <불의 여신 정이> (2013), <화정> (2015), <옥중화> (2016)로 이어지고 있다.

<선덕여왕> (2009, MBC)도 여성 정치인을 다룸으로써 정치의 외곽에서 존재해왔던 여성의 전형성에서 벗어났다. 여성으로서 선택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미실의 지략, 감성의 통제 그리고 카리스마로 남성들의 충성을 얻는 모습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의 재현이었다. 국가를 책임지고, 나름의 정치철학(민주정치)에 따른 국정운영과 대의를 추구하는 여성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떤 정치가가 될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심사일 뿐,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별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김수정, 2010).

MBC 역사드라마에서 여성주의 시각은 <대장금>과 <선덕여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도>나 <허준>에서도 보여진다. 특히 <상도>에서 다령의 모습은 음식, 의료를 넘어 경제 영역

에서 적극적으로 묘사된다. 다영이 의주총상의 대행수(大行首)라는 설정은 파격에 가깝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상인 집단의 하나인 송상의 대행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 인물의 새로운 접근으로 볼 수 있다.

6. MBC 역사드라마 서사의 계보

MBC 역사드라마가 어떤 계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역사드라마가 MBC만의 계보적 특성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공식적 측면에서 다른 방송사의 역사드라마나 다른 문화 산물들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구자가 즐거기만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MBC 역사드라마는 변용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고, 그것들은 이전의 역사드라마와 밀접히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

초창기 역사드라마들은 네 가지 경향으로 구분된다. 첫째, 왕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인물중심 드라마들로 <수양산맥> (1969), <장희빈> (1971), <대원군> (1971), <민비> (1973)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이들 역사드라마들은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둘째, 왕조사에서 벗어나 인물중심 드라마는 <집념> (1974), <예성강> (1976), <거상 임상옥> (1976), <정화> (1977) 등이다. 이들은 허준, 최무선, 임상옥, 김만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들은 왕족이나 세도가 출신이 아니라 어의, 무인, 기생 등과 같이 역사의 비주류에 속했던 인물들이다. 셋째, 허구적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애환과 부부사랑을 다룬 멜로 역사드라마들이 있다. 타락한 남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낙산도 좋을시고> (1970), 소박맞은 아내의 남편 사랑을 그린 <소박데기> (1972), 옥녀와 낭군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옥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1970년대 영화에서 인기 있었던 무협이나 도적 등을 역사드라마로 그려낸 작품들로 명나라로 공물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명> (1970), 무오사화를 배경으로 두 일파의 무협을 다룬 <석양의 나그네> (1970), <임꺽정> (1972) 등이 있다. 왕조사와 비주류 인물을 다룬 역사드라마들은 개연적 역사서술로 만들어졌다면, 여인의 애환이나 무협을 다룬 드라마들은 허구적 역사서술로 씌어졌다.

여기서 시청자의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드라마는 <장희빈> 과 <집념> 이다. <장희빈> 이 방영되었던 기간에 불쌍한 인현왕후를 구하려는 시청자들의 향의가 있었다. 악녀 장희빈의 모함으로 착한 인현왕후가 내쫓기려하자 시청자들이 전화와 편지로 항의하면서 이야기가 변경되어 인현왕후는 원래 계획보다 한 두 주 늦게 월문을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인현왕후가 쫓겨난 이후 빨리 입궁시키라는 시청자들의 요구도 이어졌다(이병훈 인터뷰 참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드라마의 스토리가 바뀐 것은 아마도 <장희빈> 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 MBC 역사드라마의 계보²³⁾

<집념>은 허준이 처음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것보다도 시청자들은 허준의 성공신화나 고난의 극복이 아니라 허준의 약방문에 관심이 높았다. 이병훈 인터뷰에 따르면, <허준>은 방영 석 달 동안 인기가 없어서 중영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허준의 약방문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가래가 생기면 도라지를 다려서 먹으면 된다는 처방 같은 것이었다. <장희빈>과 달리 시청자는 <허준>의 처방에 관심이 높았고, 이것이 <집념>이 성공하게 된 이유였다. 인기 요소가 서사가 아니라 약처방이었다는 점은 시청자가 드라마에서 느끼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보여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제작되면서 왕조사 중심의 역사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록적 역사 서술방식으로 변화했다. <추동궁마마>가 1화였지만 대중적 인기를 끈 것은 <설중매>였다. <설중매>는 11회 계유정란 방영 후 인기를 끌었고,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장기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설중매>와 더불어 중요한 작품은 <임진왜란>이다.

<설중매> 다음으로 중요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임진왜란>이예요. 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미니어처, 거북선을 만들었고, 일본에서 특수 촬영 팀이 왔어요. 제작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제작이 대형화되었어요. 국제화되었고, 처음으로 미니어처 시설을 만들었어요. 크기가 30m에서 50m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2~3m 짜리 배를 띄웠어요. 바다를 30m, 50m로 만들었어요. 뒤에는 대형 화면 스크린을 걸었어요. 바다는 길이 50m, 폭 30m였고, 대형 화면은 길이 50m 폭 20m였고, 균함은 3m 미니어처 10여척, 50cm 미니어처 50~70척 정도를 제작했어요. 일본 자문료만 3천만 원 정도 지불했어요. 몇 억 들었어요(이병훈 인터뷰, [부록·1] 참고).

23) 계보는 이병훈 PD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기가 된 역사드라마 의견과 필자의 의견을 결합해서 구성했다. 검은 색은 특히 중요한 드라마들이다.

〈임진왜란〉은 대중적인 인기를 끈 작품은 아니지만, 제작과정에서 미니어처 촬영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역사드라마가 대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역사드라마가 대형화된 것은 적어도 2000년 이후지만, 〈임진왜란〉은 역사드라마 제작방식에서 스펙터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허준〉 이후 역사드라마는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상상적 역사서술 방식을 취했다.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정통사극으로 불리는 KBS1의 대하 역사드라마를 제외하면 적지 않은 드라마들이 〈허준〉의 상상적 역사서술 방식을 받아들였다. 상상적 역사서술은 역사의 공백들을 내레이션을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작가적 상상력으로 메운다. 예를 들어,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이유는 임진왜란 과정에서 허준이 백성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거나, 영조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느 왕들보다 컸던 것은 어머니 최씨가 천민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장금〉은 역사의 비주류에 있던 여성인물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금이는 임금의 사랑을 뿌리치고 의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주체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방식의 여성인물 묘사는 이후 드라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허준〉과 〈대장금〉이 이룩한 변용과 변화는 역사적 개연성을 추구하는 〈태조왕건〉(2000~2002), 〈무인시대〉(2003~2004), 〈불멸의 이순신〉(2004~2005), 〈정도전〉(2014), 〈장비록〉(2015), 〈장영실〉(2016)로 이어지는 KBS1 대하드라마와 다른 방향에서 상상적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었다. 상상적 역사서술의 드라마는 2000년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의 화원〉(2008, SBS)이나 〈뿌리 깊은 나무〉²⁴⁾(2011, SBS) 등이 대표적이다. 〈바람의 화원〉은 신윤복이 여성이었다는 상상의 역사를 그려낸다. 신윤복의 아버지인 일월당이 음모에 의해 살해되자 신한평은 신윤복을 데려와 아들로 키운다. 신한평은 신윤복을 왕실의 화원으로 만들어 자신의 가문을 빛낼 목적으로 돌본다. 여자는 도화서에 들어갈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기에 신윤복은 아들로 자라게 된다. 더욱이 신윤복과 가야금 솜씨가 뛰어난 미모의 기생 정향은 동성에 관계로 묘사된다. 정향이 신윤복을 사랑하는 것은 표면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신윤복을 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윤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신윤복과 정향은 가벼운 동성에 관계이다. 역사학자들이 신윤복을 여성으로 설정한 것을 강력히 비판할 정도로 〈바람의 화원〉은 파격적인 상상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뿌리 깊은 나무〉(2011)도 상상력이 극대화된 부분은 정도전의 이상을 지지하는 밀본이라는 가상의 집단을 창조하고, 반촌의 백정 가리온으로 변장한 채 살고 있는 정기준이다. 정인지, 성삼문, 최만리, 박팽년 등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최만리를 비롯한 사대부들이 한글에 반대하는 적대세력으로 설정되는 것보다 허구적 인물인 정기준을 세종의 적대자로 설정함으로써 극적 상황을 연출했다. 당대 실존인물들보다 허구적 인물인 채운, 소이 등은 이야기의 중심에서 있다. 북방이나 반촌에서 험겨운 시간을 보낸 채운, 목소리를 잃은 소이가 조선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고 한글을 발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상상력이다.

〈허준〉과 〈대장금〉이 이룩한 변용은 이후 MBC 역사드라마를 세 가지 방향으로 이끌었다([그림 3] 참고). 첫째는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주몽〉(2006), 〈이산〉(2007), 〈마의〉(2012) 등이다. 〈주몽〉은 신화를 상상력으로 그려냈고, 〈이산〉은 정조시대의 격변을 방영 당시 대통령 선거와 알레고리를 형성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둘째는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선덕여

왕〉(2009), 〈동이〉(2010), 〈옥중화〉(2016) 등으로 이어진다. 〈선덕여왕〉은 미실과의 관계 속에서 권력주체로서 여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치시키며, 〈동이〉와 〈옥중화〉는 역사 속에 비주류였던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셋째는 〈태왕사신기〉(2007), 〈해를 품은 달〉(2012), 〈닥터 진〉(2012) 등과 같은 드라마이다. 〈태왕사신기〉에서 광개토태왕은 2000년을 오가는 신화의 인물로 그려졌으며, 〈해를 품은 달〉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무녀가 궁궐에서 왕과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는 삼국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의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따라서 〈해를 품은 달〉은 조선시대가 배경으로 나오지만 어느 왕조인지 설정되지 않았다. 〈닥터 진〉은 타임 슬립을 이야기의 동기로 삼은 작품이다.

MBC 역사드라마의 큰 흐름은 아니지만 무협 관련 드라마의 변화도 지적할 수 있다. 무협 드라마로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은 〈암행어사〉(1981~1984)이다. 〈어명〉(1970)이나 〈임궐경〉(1972) 같이 1970년대 무협이 역사드라마에 나오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이병훈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 드라마들은 무협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협을 찍기 위한 로케이션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인공이 어찌든 한낱 칼을 쓰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 드라마 전체에서 대여섯 번 무협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반면 〈암행어사〉는 매주 50분에서 10분은 무술장면을 넣었다. 본격적인 무협장면이 드라마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암행어사〉는 역사드라마에서 활극과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중요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의적, 수사 관련 역사드라마뿐만 아니라 전투장면에서 많은 역사드라마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7. 결론

이 글은 지난 48년 동안 MBC 역사드라마의 변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초반 이전까지 MBC 역사드라마는 KBS나 TBC 역사드라마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때까지 방송 3사의 역사드라마는 옛 이야기를 보여주는 전설이나 여인들의 애환, 혹은 역사적 인물의 야사를 흥미롭게 꾸미는 수준에 머물렀거나 정권의 문화정책에 따라서 인물중심 역사드라마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장희빈〉(1971)의 성공은 일일연속극으로 역사드라마의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83년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이후 MBC는 여타 방송사들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에 역사드라마를 제작해왔다. 비록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방송정책이 기획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정사를 역사드라마 안으로 끌어오면서 역사드라마의 새로운 서술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후 KBS1의 역사드라마는 정통사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준〉과 〈대장금〉은 사회변화라는 외재적 요인보다는 내재적 변용을 통해서 역사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다. 이들 드라마들은 상상적 서술방식뿐만 아니라 영웅 신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했으며, 멜로드라마의 구도를 차용해서 다중 플롯의 서사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한 드라마와 현실과의 알레고리를 형성했으며, 비주류의 역사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는 〈허준〉과 〈대장금〉의 영향 내에서 새롭게 변용되고 있다. 상상적 역사서술에서 허구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역사드라마에서 판타지, 초능력, 타임

24) 1983년 MBC에서 제작한 〈뿌리 깊은 나무〉는 다른 드라마이다.

슬립 등과 같은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역사드라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대가 없는 역사드라마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해를 품은 달〉이다. 〈해를 품은 달〉은 조선시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왕조인지 불분명하다. 〈해를 품은 달〉의 서사는 1500년 전이나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가능한 이야기이다(이병훈 인터뷰 [부록·1] 참고). 이것은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의 배경화’로 말할 수 있다. 허구의 역사가 제시됨으로써 사건의 인과관계와 맥락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역사의 풍경은 다양한 부분들(사건, 인물, 맥락 등)의 합으로 존재하지만 최근의 역사드라마에서 보이는 역사서술은 풍경의 한 부분을 미시적으로 그려낸다.

이 글은 MBC의 역사드라마가 이룩한 변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서 MBC가 독보적이었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83년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만 보더라도 당시 KBS에서도 유사한 기록적 역사서술의 드라마들이 존재했었다. MBC의 역사드라마가 다른 방송사의 역사드라마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음은 당연하다. 다만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형성과정에서 MBC가 1980년대 이후 선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김수정(2010), 개인주의에서 민족주의까지: TV 사극 〈선덕여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2호, 70~109쪽.
- 김아네스(2004), 사극 속의 장희빈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정두희 외, 《장희빈, 사극의 배반》, 서울: 소나무.
- 김은진(2004), 한국 사극 속 여성성과 담론분석: 〈대장금〉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15집, 81~114쪽.
- 김태연(2007),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 《어문연구》, 53권, 299~330쪽.
- 박경진(2010), TV 역사드라마 속 왕의 재현방식과 변화: 드라마 제작 내부자 관점에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백소연(2014), TV 드라마 태왕사신기에 나타난 역사성 배제와 판타지 구축의 전략, 《한국극예술연구》, 43집, 301~331쪽.
- 이기형(2007), 사극의 변화하는 풍경과 역사를 재현하는 관점들을 맥락화하기: 〈별순검〉과 〈한성별곡〉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9~33쪽.
- 이다운(2012), TV 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뿌리 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88호, 91~111쪽.
- 이동후(2004), 드라마 〈대장금〉의 사회적 효과, 《MBC 특별기획 드라마 大長今 그 성과와 사회문화적 함의》, MBC PD협회 정기 세미나 자료집.
- 이병훈(1997), TV 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훈(2000),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토론킴.
- 정영희(2005),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정래(2007), 〈대장금〉의 서사적 특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1집, 333~356쪽.
- 주창윤(2007),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 《한국극예술연구》, 25집, 369~398쪽.
- 주창윤(2016), 한국 역사드라마 데이터베이스(DB)와 해제:1964~2014, 《한국극예술연구》, 52집, 239~291쪽.
- 주창윤(2017), 역사드라마의 변천과 특성, 《한국극예술연구》, 56집, 177~208쪽.
- 하효숙(2004), 역사, 젠더 그리고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대장금〉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호, 71~117쪽.
- 황인성(2000), 드라마 〈허준〉의 장르론적 특징과 대중성에 대하여,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토론킴.
- Shaw, H. E.(1983), *The Forms of Historical Fiction: Sir Walter Scott and His Successor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부록·1]

이병훈 PD 인터뷰 내용²⁵⁾

시간: 2017년 9월 15일(금) 13:00~16:00
 장소: 라이프오피스텔 615호(이병훈 PD 개인사무실)
 인터뷰 방법: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 혼합
 인터뷰 담당: 주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1. 초창기 MBC 역사드라마 관련

[장희빈(1971), (1981), <인현왕후> (1988) 등 장희빈 관련 역사드라마]

<장희빈>이 일일연속극으로 1971년 가을부터 1972년 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대원군>을 했어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전에 역사 드라마들은 전부 짧았어요. 몇 회 정도였어요. 아니면 12~13부작 정도였습니다. 1971년 <장희빈>이 본격적인 드라마였어요. 1981년 <여인열전 장희빈>이 나왔어요. 그것은 주말연속극이었어요.

사실 이서구 씨가 쓴 <장희빈>은 드라마가 되기 위한 기승전결이나 극적인 압축성이 떨어졌어요. 그냥 라디오 드라마를 텔레비전 드라마로 바꾸었을 정도, 이야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본격적인 구조를 제대로 갖춘 드라마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텔레비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나가는 정도로 드라마적인 압축구조를 갖지 못했어요. 이야기의 진전이 없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아주 못되게 끌고 혼내주고 악녀처럼 구는 것을 반복했어요. 나인이나 임금, 후궁에게 막대하고... 큰 사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장희빈이 궁에 들어와서 임금과 만나서 권력을 잡는 과정을 극적으로 구축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였어요. 1971년 <장희빈>은 궁에서 일부 찍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인서트 샷(insert shot)이었어요. 드라마의 타이틀백이나 첫 회, 아주 중요할 때 두 회에 한 씩 정도 룡숙에서 찍었어요. 궁 앞에서 궁녀들이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것을 찍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요. 기본적으로 역사드라마에서 컬러 이전의 로케이션은 대부분 인서트 샷으로 보면 되요.

<장희빈>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인기가 높다보니까 인현왕후가 궁궐에서 나가야 하는데 시청자들이 수없이 전화해서 출궁 기간이 한 두 주 늦추어졌어요. 또 인현왕후가 출궁한 이후 다시 입궁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인현왕후를 예정보다 일찍 입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장희빈 상궁 역을 맡았던 김유선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세례를 받고 혼비백산한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때 시청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전에 이렇게 많이 시청

25) 인터뷰를 위해서 연구자는 역사드라마 관련 10개의 중요 질문을 준비했고, 이병훈 PD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들을 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술은 연구자가 일관성 있게 재구성했다. 왜냐하면 인터뷰 내용에서 반복되는 것은 삭제했고, 방영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전체를 보는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자들이 전화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1981년 <장희빈>은 제대로 된 드라마였어요. 그것은 컬러 텔레비전 시대에 방영되었고 드라마적인 구성이 제대로 되었어요. 임충 씨가 썼어요. MBC에서 주중드라마로 1981년 <장희빈>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MBC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말 TBC에서 이미 주말에 시작했어요. 이것은 요즘에 하는 드라마 형태였습니다. 권력관계 속에서 장희빈을 그려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988년 <인현왕후>가 나왔는데, 제목만 인현왕후이지 장희빈 이야기입니다. 장희빈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이름을 바꾸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과 로케이션 촬영]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암행어사>와 <교통마님>이 나왔어요. 컬러 방송이 갑자기 생겼어요. 방송사들이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컬러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컬러로 찍었지만 흑백으로 내보냈지요. 컬러가 되었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전두환이 갑자기 시킨 것이니까. 그래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당시에는 컬러 방송이 되었지만 색깔은 영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일본에서 컬러 방송 준비단이 1978년도 인가 1979년도 와서 교육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미술과 같은 준비가 안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색깔만 있을 뿐이지 색에 대한 기본은 없었어요. 원래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 내셔널 컬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해요. 영국은 컬러 방송 전에 이것을 준비하는데 10년 정도 걸렸고, 일본도 5년 정도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6개월도 안되어서 시작했어요.

컬러가 시작되고 화면이 화려해지니까 로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전에 로케이션은 예를 들어 방송분량의 10분의 1도 안되었어요. 전체 드라마의 5% 미만인 로케이션이었어요. 1970년대 로케이션 촬영은 중계차를 활용해 찍었어요. 드라마를 중계차로 뺐어요. 장점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장면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계차의 단점은 카메라가 이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기 무협드라마로 지칭된 <어명>과 <임꺽정>과 1981년 <암행어사> 관련]

<어명>과 <임꺽정>은 무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드라마가 50부작이면 네다섯 번 나올 뿐입니다. 주인공이 어쩌다 칼을 한번 쓰는 것 정도에 불과했어요. 한 회에 한 번 무협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한 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협은 찍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는 불가능해요. 로케이션을 해야 하거든요. 로케이션은 5% 미만입니다.

제가 <암행어사>를 찍을 때 3분 분량이면 6시간을 찍어야 했어요. 그런데 컬러 전에는 중계차 아니면 뉴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했는데, 뉴스 카메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촬영을 했겠어요? <임꺽정>의 경우도 내가 조연출을 했는데 거의 스튜디오에서 씨름하듯 촬영하는 수준이었어요. 본격적인 무술드라마라고 할 수 없어요. <임꺽정>이니까 싸움하는 장면을 안 찍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몇 번 보여준 것 뿐이에요. 싸움하는 것도 거의 스튜디오입니다. 로케이션의 경우 임꺽정이 힘쓰는 장

면에서 뉴스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한 대로 찍었어요.

그러나 <암행어사>는 뉴스 카메라로 찍지 않았어요. 뉴스 카메라는 <택시운전사>(2017개봉한 영화)에서 나오는 카메라보다도 더 작은 것,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찍었어요. <어명>과 <임격경>은 무술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을 정도예요. <암행어사>는 50짜리 드라마인데 10분은 대회 무술이 나와요. 무술을 찍는데 드라마의 반 이상을 할애했어요. 촬영을 하면 편집과 디빙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찍다가 아주 골병들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 . 1년쯤 지나서 KBS에서도 <포도대장>(1983)을 찍었는데 그것도 무술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2.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관련

[1980년대 초반 역사드라마 제작 배경]

1980년대 초반 KBS는 <대명>, <햇불>을 방영 했어요. 1980년대 전두환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국가에 기여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건전한 역사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역사의 경험을 보여주라는 것이 당시 문공부의 지침이었어요. 1970대 중후반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두환이 들어와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1979년 박정희의 죽음 이후 1980년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온갖 내용 다했어요. 불륜이고 뭐고 마음대로 했어요.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6개월 전까지. 서울의 봄 시기에 드라마는 자유롭게 제작되었어요. 예전에 삼금(三禁)이 있었어요. 흔히 삼혼(三婚)이라고 했어요. 혼전임신, 혼외정사, 혼전섹스는 금지되었어요. 그것을 드라마에서 못 다루었어요. 그때 아무 약속도 안했는데 이 소재를 다루었어요. 드라마 윤리문제로 걸릴 것 같았는데 . . . 방송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대통령되고 나서 방송이 난잡하고 문란하다고 해서 방송 통제가 가해졌어요. 드라마나 모든 역사물들은 공익적인 기능을 강조했어요. 1975년 경우 월남패망하고 나온 국난극복드라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요. 1981년과 1982년 <민족풍속도>나 <전설야화> 같은 드라마가 나온 것이 통제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드라마들은 걸릴 것이 없으니까. <민족풍속도>가 얼마나 건전했는데요. 한국의 풍속을 그리니까. 그렇지만 말이 드라마지 정부에게 우리가 훌륭한 드라마를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전설야화>도 전설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조선왕조 500년 기획과 주요 드라마]

KBS에서 <대명>, <개국>, <햇불> 등을 제작했어요. 나라가 엉망이어서 전두환이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KBS가 먼저 시작했고, MBC에서도 무엇인가 큰 드라마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2년짜리 기획을 했어요. 2년에 조선왕조 500년을 다루기로 했어요. 나중에 8년까지 갔지만 2년 동안 한다는 것이 길어졌어요. 애초에 2년 기획이었어요.

일주일에 월요일 한번 나가는 것으로 기획을 했어요. 우리는 개국부터 시작해서 순종 때까지 가져하고 시작한 것이 <추동궁마마>였어요. 1회에서 개국과 관련해서 이성계와 태종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추동궁마마>이고, 2화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 3화는 단종과 수양대군을 다룬 것이었어요. 그런데 3회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설중매와 임진왜란]

<뿌리 깊은 나무>는 일찍 끝났어요. 20여회 했어요. 조선왕조 500년은 연대기였어요. 큰 사건들을 그대로 연결한 것이었어요. 1984년도 <설중매>에서. . .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설중매>를 하다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두 개씩 하자. 11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11회가 계유정란으로 수양대군이 정권 잡은 것이었어요. 연대기였는데 왜 <설중매>는 인기가 있었느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살리고, 그 안에 극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재미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유정란이었어요. 계유정란은 쿠데타입니다. 계유정란이 전두환 쿠데타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시청자들이 엄청 좋아한 것이예요. 원래 그것은 방송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동궁마마>에서 왕자의 난이 다 잘렸어요. 이방원이 군대를 일으켜서 형제들 죽이는 것은 다 잘렸어요. 방송 나갈 때 중정(중앙정보부), 보안사, 시경 요원들이 상주할 때였어요. 이들이 방송을 감시했어요. 방송에 나가면 문공부, 중정, 시경, 보안사도 보았어요. 방송 나가고 난리 났어요. 2차 왕자의 난이 정도 전을 죽인 것인데 다 잘렸어요. 그래서 <추동궁마마>가 일찍 종영되었어요. 외압은 외압인데 자체 외압도 있고, 어디선지 모르게 외압이 왔어요. 30회 하고 그만 두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세종대왕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설중매>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끝났을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에서 <설중매>가 일 등이예요. 1984년도에 사극에서는 <설중매>, 현대극에서는 <사랑과 진실>이 최고 히트했어요.

<설중매>가 재미있었던 것은 단종에서 시작해서 세조, 폐비 윤씨, 연산군 이야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설중매>를 일 년 동안 한 거예요. <설중매>는 중종반정까지 다루었어요. 한명회는 단종 때부터 중종반정 전까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한명회가 죽었어요. 죽고 난 후 유자광이 나왔는데. . . 변희봉 씨가 유자광 역을 했는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이 인기어가 되었어요. <설중매>가 특별히 사료를 영상화시키는 것이 방송정책에서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왜 <설중매>가 인기 있었냐?

<설중매>하면서 계유정란에서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추동궁마마>에서는 잘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렇다고 계유정란을 안 다룰 수 없어서 일단 방송한 이후에 보자 생각했어요. 드라마가 되려면 계유정란에서 세조가 단종 세력을 죽이는 것을 다루어했어요. 11회에 그것을 찍었어요. 11회에 방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 잘렸어요. 아무 곳에서도 억압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것인데. . . 전두환이 회의하면서 11회 보고나서 그 밑 홍보수석실에 와서 “너희들 <설중매> 보았어. 그거 무지하게 재미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홍보수석실 비서관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나는 11회 나가고 이것저것 잘릴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나간 거죠. 아무 곳에서도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예요. 전두환이 재미있다고 했는데 누가 자르겠어요? 인기가 있고나서 창덕궁에 촬영가면 보안사에서 얼씬도 못했어요. 화제가 되면서 12회부터 2회씩 월화드라마로 되었어요. 정확히 13회부터 2회씩 방영되었는지는 명확치는 않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설중매>라는 타이틀로 끝까지 간 것입니다. <설중매>의 명목적인 주인공이 인수대비인데요. 성종의 어머니자 문종의 아내, 고두심씨가 맡았는데 인수대비가 죽을 때까지 방영한 거예요. 인수대비가 죽고 나서도 방영했어요. 인수대비가 폐비 윤씨를 죽였기 때문에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죽였지요.

<설중매> 다음으로 중요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임진왜란> 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미니어처, 거북선을 만들었고 일본에서 특수 촬영 팀이 왔어요. 제작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제작이 대형화되었어요. 국제화되었고, 처음으로 미니어처 시설을 만들었어요. 크기가 30m에서 50m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2m~3m 짜리 배를 띄웠어요. 바다를 30m 50m로 만들었어요. 뒤에는 대형 화면 스크린을 걸었어요.²⁶⁾ 당시 비용은 대단했어요. 일본 자료료만 3천만 원 정도 지불했어요. 몇 억 들었어요.

재미로 성공한 것이 <인현왕후>예요.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NHK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했어요. 드라마를 압축시켜서 한 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소개를 했어요. 올림픽 동안에 한국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한국을 소개했어요.

3. 허준 관련 내용(<집념>, <동의보감>, <허준>, <구암 허준>)

<집념> 이후 <동의보감>은 14회였어요. 그때는 1991년도는 미니시리즈가 유행했었어요. 미니시리즈는 8부작이 기본이었어요. 조금 더 길면 12부작, 14부작이었어요. 미니시리즈는 1976년대 어윈 쇼의 소설 《The rich man and the poor man》이 대성공하면서 미니시리즈로 제작했고, 한국에서도 <야망의 계절>로 인기가 높았어요. 드라마를 제작하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음 드라마 제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짧은 드라마로 임시방편으로 편성을 해요. 1977년도에 미국에서 편성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뿌리>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야망의 계절>이 한국에서 방영되어서 크게 히트 쳤어요. 이것이 미니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은 8부작이었는데 인기가 있어서 4회 늘린 것이예요. <집념>의 허준하고, <동의보감>의 허준은 다르고, <동의보감>의 허준과 <허준>의 허준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은성씨가 <집념>을 쓰고나서 소설 《동의보감》을 집필했어요. 드라마와 소설이 다르잖아요. <집념>은 처음 석 달 동안 인기가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나서 허준의 약방문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예를 들어, 가래가 생기면 도라지를 다려서 먹으면 돼 이런 내용들이 인기가 높았어요. 허준이 의사가 되면서 약방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인물 때문에 인기가 높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동의보감> 때도 <허준>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집념>을 성공하게 된 이유예요. 처음 석 달 동안 인기가 없어서 언제 끊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국장들이 회의했어요. 프로그램 폐지가 오늘 내

26) 여기서 이병훈 PD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는데, 바다는 길이 50m, 폭 30m였고, 화면은 길이 50m 폭 20m였고, 군함은 3m 미니어처 10여척, 50cm 미니어처 50~70척 정도를 제작

일 할 때 약방문으로 성공하고 나서 이은성 씨가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만든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인물의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인물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이타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 . <구암 허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암 허준>과 <허준>과는 드라마에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구암 허준>은 일일극이기 때문에 <허준>과 구성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구암 허준>은 일일극이니까 매회 사건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측면에서 차이는 없어요. <허준> 64회 대본으로 작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해요. 인물도 똑 같아요.

<동의보감>하고 <허준>은 주변 인물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동의보감>은 소설 《동의보감》을 그대로 각색했어요. 내가 만든 <허준>은 <동의보감>의 20% 정도만 따오고 나머지는 전부 픽션으로 만들어냈어요. <동의보감>은 소설 《동의보감》과 똑같아요. <동의보감>은 임진왜란 이후 이야기가 없어요. <허준>은 임진왜란을 길게 다루었어요. 임진왜란이 8~9회 나왔어요. <동의보감>에는 임진왜란이 안 나와요. 이은성 씨가 소설 《동의보감》을 세 권으로 썼는데 완성된 책이 아니었어요. 도중에 이은성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나오지 않아요. <구암 허준>에서도 임진왜란이 조금 나오지요. <허준>에서 임진왜란은 중요해요. 허준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의서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허준이 임진왜란 때 인정을 받아서 공신칭호를 받아요. 허준이 임진왜란 기간에 선조를 끝까지 따라 다녔어요. 그래서 허준이 임진왜란 때문에 선조의 사랑을 받고 공신이 되고 어의가 되어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의서가 필요하구나. 임진왜란이 책을 쓰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예요. <허준>은 처음에 40회로 기획했다가 64회로 늘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허준>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역사드라마 작가를 싹 배제했어요. 기존 작가들은 사료나 역사는 잘 아는데 그것은 드라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4. MBC 드라마에서 여성인물

1981년 <여인열전>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장희빈>, <황진이>, <서궁마마> 등이었어요. 1980년대 여성인물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왕비나 기녀 등을 다룬 것입니다. 재미있는 인물, 역사적으로 드라마하기에 좋은 극적인 여성을 선택한 것이 <여인열전>입니다. 원래 12권짜리 전집소설이 있었는데 김영근씨가 작가였어요. 이것은 4년 동안 라디오 드라마 <여인열전>으로 방송되었어요.

2000년 이후 여성 인물을 설정할 때 강조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허준> 하면서 큰 콘셉트가 뭐냐면 사극의 내용이 지금의 현실에서도 관심이 가는 직업과 사건과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극중에 나오는 인물의 생각, 가치관, 직업이 현대에도 관심을 갖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현재에 존재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예전 아씨가 의녀생활을 할 때 간호사나 의사들이 보지 않겠는가? 장금이 요리하는 것을 지금 여성들이 요리하면서 보지 않겠는가? (<상도>의) 다영은 장사꾼이예요. 지금도 여자 사장이나 기업인이 많으니까 현실과 교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오늘날에도 비슷한 직업이 존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임당 같은

인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여자의 시각으로 너무 매력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지금에서도 매력이 있으려면 그 직업이 현재와 연계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그 여자의 생각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자기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임금의 사랑을 뿌리치고 자신은 의녀의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허준>부터 현재까지 내가 갖고 있는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직업의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왕비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생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1990년대 초에는 사극이 없어서 1990년대에 여성인물은 특징적이지 않았어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여성인물은 확 바뀌었어요. <허준>의 예진과 <대장금>의 장금은 다르죠. <대장금>, <동이>, <옥중화>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다른 것은 남자가 주인공이고 상대역이었다. 허준의 예진 아씨나 상도의 다령이도 상대역이었다. 장금이나 동이, 옥중화는 주인공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여자 주인공 드라마는 남자에 예측되지 않고 독립적이에요. 설사 남자가 자신을 버려도 따라가지 않아요. 남자에 얽매어서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남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남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령이도 임상옥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동이는 아들이 영조니까. 동이는 자신이 천민 출신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민과 아픔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았어요. 조선 왕들 중에서 영조가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고. . . 영조시대 모든 가혹한 형벌들은 다 없어지고 영조임금이 특별히 백성들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희빈 최씨가 천민이니까. . . <옥중화>도 드라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안 나와요. 현재 여성들이 볼 때 나 저 여자 같이 되고 싶다. 저 여자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처음부터 작가들에게 부탁하고, 그런 인물을 선택해요.

5. 최근 역사드라마 변화

최근 역사드라마의 변화나 특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판타지와 타임슬립, 초능력 이예요. <명불허전>, <도깨비>나 <사임당>도 마찬가지고. . . 요즘에 <군주>나 <왕은 사랑한다> 같은 것들을 보면 연대가 안 나와요. 시대가 없어요. 1970년대 여인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들조차 나름대로 시대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내레이션으로 시대를 말했어요.

시대가 없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나 <해를 품은 달>부터예요. 시대가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은 1500년 전이나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드라마의 무대는 조선시대에요. 무녀가 있어서 무녀가 궁에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해요. <왕은 사랑한다>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인지 안 나와요. <군주>는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도저히 조선시대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편수회도 불가능한 것이고, 세자가 가면을 쓰고 이것은 우리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시대와 제도를 뛰어 넘어 마음대로 상상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임금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고려시대에는 이성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우왕, 창왕 때 임금이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신이였어요. 임금이 힘이 없었던 시대를 역지로 찾으면 중종반정 때 3년 정도 동안이예요. 인조반정 세력들은 4년 지배했어요.

6. MBC 역사드라마의 특징과 주목할 만한 작품들

MBC 드라마는 1980년대까지는 KBS와 비슷했어요. 정부가 통제를 했으니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KBS는 과거에 했던 사극의 방식에서 정부의 입김을 반영하지 않는 역사를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작했어요. 시청률과 상관없이. <불멸의 이순신>, <태조왕건>, <장영실>까지. MBC는 그것을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에서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 . 2000년대 와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역사에 묻혀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새롭게 조명하고 픽션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었어요. TBC는 옛날 이야기 중심의 드라마였어요. 당시에는(1970년대 중후반) TBC가 매우 썩어요. 신봉승씨와 김재형씨가 있어서. <별당아씨>나 <임금님의 첫사랑> 류의 드라마들이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인기가 있었어요. MBC는 역사에 있는 단편들을 꼬집어내어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KBS는 사료 중심이었어요.

일단 <장희빈>(1971)은 시청률이 높아서 주목할 수 있고요. <임꺽정>은 당시로는 200만원 고료 당선된 작품인데요. 유현종 씨가 썼지요. <민비>는 김영애의 출세작인데. . . <집념>은 아시겠고. . . <타국>이 있어요. 이것은 일본으로 처음 촬영을 갔어요. 배우 데리고 잠깐 갔어요. <예성강>은 고려시대를 처음으로 한 것이고, <거상 임상옥>은 최인호가 <거상 임상옥>을 보고 <상도>라는 소설을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야외촬영은 처음 한 것일 거예요. <안국동 아씨>는 인기가 있었어요. 혜경궁 홍씨 이야기니까요. <장희빈>도 인기 있었고. . . <설총매>, <임진왜란>, <인현왕후>. . . <허준>이 나오고. . . <다모>가 특별했어요. HDTV로 처음 촬영하고 다모페인도 있었고, <다모>는 전원 사전제작은 아니지만 꽤 많이 제작했어요.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 . 주인공이 여왕이니까. <태왕사신기>는 시청률도 안 좋았고 어려웠어요. 일본에서도 시청률이 안 좋았어요. <해를 품은 달>도 특별해요. 시대가 밝혀지지 않는, 내용은 1500년 전이고 화면상의 무대는 조선시대이고. . . <기황후>가 인기가 있었지만 고증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지요.

[부록 · 2]

MBC 역사드라마 목록(1969~2016)

이 목록은 이병훈(1997) 《TV 사극 편람》(1964~1996)을 토대로 만들었다.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았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편성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연도	방송사	제목	시대배경	서사	주인공	유형	형식	작가	연출가	기타
1969	MBC	회심곡	조선속중	당쟁에 휩쓸린 양반가의 애환		왕 세도가 중심 야사	주간	김희창	유길촌	MBC 첫 역사드라마
1969	MBC	태평천하	일제강점기	1930년대 상류사회의 풍속		민중의 삶	일일	김민부	표재순	채만식의 동명 소설 각색. 일일극으로 기획되었으나 4회밖에 못하고 중영
1969	MBC	수양산맥	조선문종세조	수양대군의 왕위권탈	수양대군, 단종	인물중심 야·정사	주간	이상현	이효영	
1970	MBC	어명	가상의 조선	명나라로 공물 운반과 관련된 무협		의적, 무협과 수사물	일일	김동현	표재순	방송회수 단종문제도 PD집단사표 제출소동
1970	MBC	물레방아	조선고종(구한말)	구한말 소작인의 일생		민중의 삶	일일	차범석	이동희	
1970	MBC	석양의 나그네	조선연산군	무오사화를 배경으로 두 일파의 무협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간	김민부	유길촌	
1970	MBC	사돈덕	가상의 조선	부부사랑과 모성에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간	이서구	박철	
1970	MBC	낙살도 좋을시고	가상의 조선	남편을 새 사람 만드는 아내(해학극)		풍자와 해학	주간	이서구	박철	
1971	MBC	장희빈	조선속중	장희빈의 일대기	장희빈, 인현왕후	왕 세도가 중심 야사	일일	이서구	유홍렬	높은 시청률 기록, 본격 일일 역사드라마 출발
1971	MBC	소박대기	가상의 조선	소박맞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음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간	이서구	유홍렬	
1972	MBC	대원군	조선고종(개화기)	대원군의 일대기	대원군	인물중심 정사	일일	이은성	표재순	유주현 동명 소설 각색
1972	MBC	일편단심	가상의 조선	조선 여인의 애환과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이서구	유홍렬	
1972	MBC	임꺽정	조선명종	임꺽정의 활약상	임꺽정	의적, 무협과 수사물	일일	유현종	표재순	200만회 고료 극본 당선작
1973	MBC	민비	조선고종	명성왕후의 일대기	명성왕후, 대원군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김영근	표재순	
1974	MBC	성춘향	가상의 조선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고전야담 및 설화	일일	이은성	유홍렬	고전소설 <춘향전> 각색
1974	MBC	복녀	가상의 조선	궁으로 끌려간 아내를 찾는 남편의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곽일로	박철	
1974	MBC	황녀	조선고종	이문용(고종과 임성공의 딸)의 일대기	이문용	왕 세도가 중심 야사	일일	유현종	이연현	
1974	MBC	양반	가상의 조선	상놈으로 태어나 양반이 되는 인생		민중의 삶	일일	곽일로	유홍렬	
1975	MBC	효자문	가상의 조선	혼자 사는 며느리의 효성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김영근	박철	
1975	MBC	집념	조선선조	허준의 일대기	허준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은성	표재순	허준을 다룬 첫 드라마
1976	MBC	윤진사택 며느리	가상의 조선	공주의 시집살이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김영근	박철	

1976	MBC	예성강	고려	최무선의 일대기	최무선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은성	표계순	민족사관정립극
1976	MBC	사미인곡	조선효종	이완장군과 효종의 복벽	이완, 효종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상현	표계순	민족사관정립극
1976	MBC	거상 임상옥	조선순조	임상옥의 일대기	임상옥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은성	유홍렬	민족사관정립극
1977	MBC	정화(情火)	조선정조	김만덕의 일대기	김만덕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상현	유홍렬	민족사관정립극
1977	MBC	타국	조선선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민중의 삶	일일	신봉승	표계순	민족사관정립극/첫 해외촬영
1977	MBC	옥녀	가상의 조선	조선 여인의 이별과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남지연	심현우	
1978	MBC	정부인	가상의 조선	내시의 양아들과 며느리에 얽힌 내용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신봉승	표계순	
1978	MBC	연지	려말선조	려말선조 남녀의 운명적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일일	신봉승	표계순	
1978	MBC	역사의 인물	혼합	역사 위인들의 일대기		인물중심 야-정사	연속단막	이철향	이병훈	<명인백선>, <백>, <남>
1979	MBC	소망	조선철종	김정호의 일대기	김정호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이은성	표계순	
1979	MBC	안국동 아씨	조선영조정조	해경궁 홍씨의 일대기	해경궁 홍씨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신봉승	표계순	
1980	MBC	고운님 여의옵고	조선문종세조	사육신의 비극	단종, 수양, 사육신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신봉승	표계순	
1980	MBC	간양록	조선선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강항 일대기	강항	민중의 삶	일일	신봉승	표계순	
1980	MBC	홍사초롱	가상의 조선	과부가 된 양반대 규수의 사랑과 애환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간	김영곤	유길촌	
1980	MBC	채봉진	가상의 조선	정춘남녀의 사랑을 가로막는 부패한 현실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간	심영식	유길촌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각색
1981	MBC	교동마님	조선중종명종	정난정과 윤원형의 권력싸움과 사랑	정난정, 윤원형	왕 세도가 중심 야사	일일	신봉승	표계순	칼라 방송
1981	MBC	장희빈	조선숙종	장희빈, 인현왕후, 숙종의 권력싸움과 사랑	장희빈, 인현왕후	왕 세도가 중심 야사	주중	임춘	유길촌	주중(영화) 편성 출발
1981	MBC	알행어사	가상의 조선	알행어사의 활약상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간	김항명	이병훈	
1981	MBC	민족풍속도	혼합	민족 풍속과 문화		민중의 삶	주간	오재호	최중수	
1982	MBC	진철야화	가상의 조선	진철을 매주 한 주재석 극화		고전야담 및 설화	일일	고영훈	유길촌	
1982	MBC	서궁마마	조선광해군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의 비극적 운명	인목대비, 영창대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홍종원	표계순	
1982	MBC	은장도	가상의 조선	며느리의 시집살이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중	임춘	유길촌	
1982	MBC	황진이	조선중종	황진이의 일대기	황진이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임춘	최중수	
1983	MBC	추동궁마마	려말선조	고려왕조의 폐망과 조선 개국	이성계, 이방원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1화)
1983	MBC	뿌리깊은나무	조선세종	세종의 일대기	세종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2화)

1984	MBC	설중매	조선문종연산	인수대비의 관점에서 왕조사를 극화	인수대비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3화)
1985	MBC	풍란	조선중종명종	윤원형과 정난정의 정난정	윤원형, 정난정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4화)
1985	MBC	임진왜란	조선선조	임진왜란의 발발에서 종료까지	이순신, 풍신수길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5화), 대규모 미니어치 해외촬영
1985	MBC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조선고종(개화기)	개화기 신분이 다른 세 여인의 인생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말	임춘	최중수	
1986	MBC	회천문	조선광해군	광해군 시기의 정치사회상	광해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김종학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6화)
1986	MBC	남한산성	조선인조	병자호란의 발발에서 종료까지	인조, 임경업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김종학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7화)
1988	MBC	인현왕후	조선숙종	인현왕후의 역경과 인생	인현왕후, 장희빈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8화)
1988	MBC	한중록	조선영조정조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정치사	해경궁, 사도세자, 영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9화)
1988	MBC	大劍子	가상의 조선	보물지도를 둘러싼 무사들의 혈투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윤석훈	윤정수	김병출 동명 소설 각색
1989	MBC	破門	조선정조	실학, 천주관과 전통유학의 대립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10화)
1989	MBC	大盜佛	고려말	고려 의적 맹활의 활약상	맹활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윤석훈	윤정수 외	윤백나 동명 소설 각색
1990	MBC	대원군	조선고종(개화기)	구한말의 정치사회상	대원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간	신봉승	이병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11화)
1991	MBC	동의보감	조선선조	허준의 일대기	허준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이상현	이제갑	이은성의 동명 소설 각색
1992	MBC	일출봉	조선고종(구한말)	신분과 환경이 다른 세 남자의 가족사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중	임춘	이제갑	
1993	MBC	일지매	조선인조	의적 일지매의 활약상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김남	조종현	최정주 동명 소설 각색
1994	MBC	야망	조선정조	각기 다른 삶은 사느 네 남매의 일생		멜로드라마(사랑과 애환)	주중	임춘	이제갑	
1994	MBC	세야새야 과랑새야	조선고종(구한말)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		민중의 삶	주중	홍기선	이은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작품
1996	MBC	비망	개항~6.25	개성상인 천치만 일간의 3대 가족사		민중의 삶	주중	임춘	소원영	박완서 동명 소설 각색
1998	MBC	태왕의 길	조선영조정조	영조~정조 시기의 정치사	영조, 사도세자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임춘	소원영	
1999	MBC	왕초	일제강점기	김춘삼 일대기	김춘삼	민중의 삶	주중	지성학 외	장용우	
1999	MBC	허준	조선선조	허준의 일대기	허준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최완규	이병훈	시청률 48.3%
2001	MBC	상도	조선순조	임상옥의 일대기	임상옥, 박주영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최완규 외	이병훈	최인호 동명 소설 각색

2001	MBC	홍국영	조선영조	홍국영의 일대기	홍국영, 정조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임충	이계갑	
2002	MBC	어사 박문수	조선영조	암행어사 박문수의 활동기	박문수, 영조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고동틀 외	정인	
2003	MBC	다모	조선숙종	조선여행사의 봉건질서 저항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정형수	이계규	전편 등장
2003	MBC	대장금	조선중종	의녀 장금의 사랑과 성공	서장금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김영현	이병훈	시청률 46.3%, 한류 드라마
2005	MBC	신돈	고려공민왕	신돈의 일대기	신돈, 공민왕	인물중심 야·정사	주말	정하연	김진만	
2005	MBC	추리다큐 별순검	조선고종(개화기)	개화기 과학수사대의 활약상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간	김은영 외	김홍동 외	MBC 드라마넷 조선과학수사대 별순검 시즌1(2007), 시즌2(2008), 시즌3(2010)으로 제작
2006	MBC	주몽	고조선후기	주몽의 고구려 건국기	주몽, 소서노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최완규 외	이주환 외	시청률 49.7%
2007	MBC	이산	조선영조정조	정조의 일대기	정조, 영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중	김이영	이병훈 외	
2007	MBC	태왕사신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배경으로 판타지 무협	담덕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송지나 외	김종학 외	
2009	MBC	돌아온 일지매	조선인조	일지매의 활약상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김광식 외	황인뢰 외	고우영 동명 만화 각색
2009	MBC	선덕여왕	신라	선덕여왕의 일대기	선덕여왕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김영현 외	박홍균 외	시청률 43.6%
2009	MBC	타나는도다	조선인조	선비, 표류 영국청년 윌리엄, 헤녀의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예환)	주말	이재윤 외	윤상호 외	정혜나 동명 만화 각색
2010	MBC	김수로	가야국	김수로의 가야건국기	김수로	인물중심 야·정사	주말	장선아 외	장수봉 외	
2010	MBC	동이	조선숙종	숙빈 최씨의 일대기	동이, 숙종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김이영	이병훈 외	
2011	MBC	계백	백제	계백의 일대기	계백, 의자왕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정형수	김근홍 외	
2012	MBC	닥터진	조선/현대	조선후기로 시간이동한 외과의사 활약상		멜로드라마(사랑과 예환)	주말	한지훈 외	한희 외	무라카미 만화 <타임 슬립 닥터진> 각색
2012	MBC	마의	조선현종	친민으로 어의에 올랐던 백광현의 일대기	백광현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김이영	이병훈 외	
2012	MBC	무신	고려무신정권	무신 김준의 일대기	김준, 최우	시대배경 중심 정사	주말	이환경	김진민 외	
2012	MBC	해를 품은 달	가상의 조선	가상의 왕과 무녀 월의 사랑		멜로드라마(사랑과 예환)	주중	진수완	김도훈 외	정은걸 동명 소설 각색
2012	MBC	아랑사또전	가상의 조선	치녀귀신 아랑과 사또의 사랑		고전 야담 설화	주중	정윤정	김상호, 정대윤	
2013	MBC	구가의 서	조선선조	반인반수 최강치의 사랑과 무협		멜로드라마(사랑과 예환)	주중	강은경	신우철 외	
2013	MBC	구암 허준	조선선조	허준의 일대기	허준, 유의태	인물중심 야·정사	일일	최완규	김근홍 외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각색

2013	MBC	불의 여신 정이	조선광해군	여성 사기장인 백과선의 일대기	유정(백과선), 광해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권순규 외	박성수	권순규 동명 소설 각색
2013	MBC	제왕의 수백향	백제	무령왕의 딸 수백향의 일대기	수백향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황진영	이상엽 외	
2013	MBC	기황후	고려(원순제)	고려 여인 기승냥의 사랑과 투쟁	기승냥	인물중심 야·정사	주중	장영철 외	한희 외	장영철 동명 소설 각색
2014	MBC	야경꾼일지	가상의 조선	야경꾼의 활약상		의적, 무협과 수사물	주중	유동윤 외	이주환 외	방지영 스토리공모 우수작
2015	MBC	빛나거나 미치거나	고려시대	광종과 공주의 사랑	광종	멜로드라마	주중	권인찬, 김선미	손형석, 윤지훈	현고는 원작소설 <빛나거나 미치거나>
2015	MBC	화정	광해군-인조	정명공주의 삶	정명공주	왕조중심 야사	주중	김이영	김상호, 최정규	김이영 원작<화정>
2015	MBC	밤을 걷는 선비	가상의 조선	뱀파이어 선비의 사랑		멜로드라마	주중	장현수	이성준	조주희, 한승희 원작만화<밤을 걷는 선비>
2016	MBC	옥중화	명종	옥(獄)에서 태어난 옥녀의 성장기		멜로드라마	주중	최완규	이병훈, 최정규	

